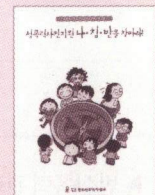


나눔터

2005·봄

제49호

- 2 ● 2005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3 ● 여는글 | 2005, 신명나게 펼치는 반성폭력운동
- 4 ● 똘대 상담소
- 8 ● 여기는 여성주의 상담실 | 2004년도 상담현황
- 16 ● 열림터이야기 | 열림터, 지난 10년을 반추하고 새로운 10년을 전망하다
- 19 ● 하담이야기 | 하담, 지난 1년의 이야기
- 21 ● 기획좌담 |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2004년
- 27 ● 기획 I |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그녀들의 목소리 세상을 울리다”를 마치고
| 말하기 대회 이후 세상은 장미빛이 아니지만...
| 참가신청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 말하기 대회
| 걸음이 느린 아이
- 35 ● 기획 II | 정답이 아니라 바램이 우리를 이끈다
- 39 ● 지금 법정에서는 |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 나와
- 41 ● 이웃집 놀러가기 | 하와이의 어린이 인권보호
- 46 ● 인터뷰 | 상담의 깊이와 매력을 알아간다는 전성혜 선생님
- 48 ● 상담현장 Q&A | 비디오훈격화규정과 증거보전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다
- 49 ● 새로 발간된 자료
- 51 ● 신입활동가소개
- 52 ● 회원소모임 동정 | 시골벽적 재미나는 회원소모임들
- 53 ● 아낌없이주는나무
- 55 ● 마담 릴레이



사단
법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사무전화 (02)338-2890~2 ● 팩스 (02)338-7122 ● E-Mail : ksvrc@korea.com
● 전화상담 : (02)338-5801~2 성폭력 피해 생존자 단기보호시설 열림터 입소문의 (02)338-3562/Fax (02)338-1007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지킴이공동체 하담 입소문의 (02)338-3563
● 인터넷상담 : ksvrc@chol.com ● 홈페이지 : http://www.sisters.or.kr

2005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힘모아 힘주어~

I.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체계 강화

- ▶ 성폭력피해 생존자 '힘모아 힘주기장' 마련
 - 3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 휴식캠프 '쉽, 호흡'
 - 직업, 건강찾기 프로젝트
- ▶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치유프로그램 관련 영상물 제작
 - 성폭력피해 유형별 가이드 북 제작

II. 반성폭력 문화 확산 -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개발

- ▶ 성폭력피해 생존자를 위한 '문화적 치유의장' 마련
 - 3회 여악여락(女樂女樂) 콘서트
- ▶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적 권리' 확보
 - 2회 밤길 되찾기 캠페인
 - 청소년을 위한 호신 프로젝트
 -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비디오」 제작

III. 반성폭력 법·정책 감시 및 담론 생산

- ▶ 반성폭력 관련 법·정책 감시 활동 강화
 - 성폭력-법적 쟁점분석 workshop
 -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법담론」 단행본 발간
 -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
- ▶ 반성폭력 담론 생산과 확장
 - 「섹슈얼리티 강의II」 발간
 - 세계여성학대회 「세계의 반성폭력운동」 세션 진행

2005년, 신명나게 펼치는 반성폭력운동

이미경 _ 본 상담소 소장



안녕하세요?

2005년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해 우리 상담소는 2,700여건의 상담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생존자들의 보금자리인 “열림터”가 개소 10년을 맞아 그동안 열림터 가족 251명의 지원체계를 돌아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소 초기부터 계획했던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작년 11월에는 2,500명의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문화적 치유의 장으로 꾸민 여악여락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2회 생존자말하기대회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과 새로운 힘을 주었고,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북 마련과 성폭력사건지원자 매뉴얼도 새롭게 시도한 사업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좀 더 내실 있는 생존자 지원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겨져있고, 여성운동이 제도화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상담소가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성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애정 어린 비판,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는 좀 더 신명나게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국에서 여름밤의 함성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여악여락 콘서트와 생존자말하기대회도 더욱 감명 깊은 시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부당한 폭력을 매순간 강력히 거부하며, 생존자들의 치유에의 강한 힘과 용기에 힘입어 사회변화를 위해 매순간 열심히 뛰며 즐겁게 활동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상담소

2004.9~2005.3

9월 26일-28일

열림터 추석캠프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열림터가 특별한 명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명절때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번 추석 때는 가족중심적인 문화와는 다른, 재미있고 신나는 테마여행을 준비하여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10월 6일

열림터개소10주년기념세미나 “보호시설입소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의 현황과 과제”

열림터의 10년간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입소자 지원과 시설운동의 진단과 각 전문분야의 지원체계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여성주의 쉼터로서의 특색을 만들어가는 대안을 찾는 작업과 보호시설의 표준 프로그램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열림터의 10주년을 맞이하여 200여명의 여성단체활동가, 관련인사, 시민이 함께 축하하는 조출하고 따뜻한 자리도 함께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또 10월 22-23일에는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상담자워크샵>을 개최하여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심리적 개

입과 비가해 부모에 대한 상담 개입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기법을 훈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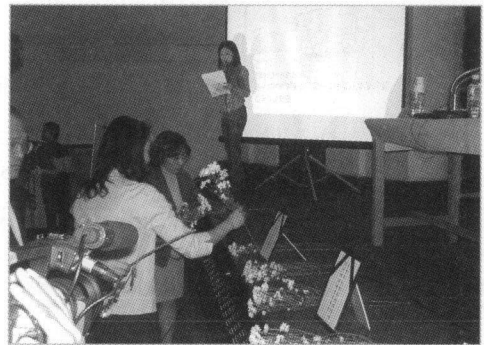
10월 11일

합정동 여성단체 활동가 모임

합정동에 여성단체들이 하나둘 이사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었던 한국여성노동자회와 본 상담소에 이어 페미니스트저널 If, 늘푸른 여성지원센터, 여성정치세력화연대 등이 모여있답니다. 이웃집 페미니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 모임이 앞으로는 지역 여성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10월 13일

어린이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 재판 시민 감시단 발족식



부산에서 일어난 신부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계속 불기소되고, 2차 피해에 분노해 피해생존자 어머니가 손가락을 자른 단지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린이 성폭력 사건 지원과정 중 수사,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는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9일

**성폭력사건지원자를 위한 검열 없는
집담회**

〈성폭력 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사건 지원자를 위한 가이드북팀이 책을 만들면서 든 고민들을 더 깊게 나누어보고자 15여명의 단체활동가와 학내지원자 등을 초청해 “검열 없는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각자를 괴롭히던 고민을 같이 나누니 서로 힘이 되고 위로와 지지가 되고 긴장도 되어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1월 2일

정치적 행위로서의 자기방어훈련 :

월례포럼

〈오라차차 호신가이드북〉을 함께 준비하는 팀이 그동안 공부했던 여성주의 호신과 자기방어개념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키라와 오매가 그동안의 고민과 10대 여성들을 만난 경험, 호신으로 만나는 새로운 여성의 가능성에 대한 가슴두근거리는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 고민들은 여성들의 차이에 기반한 성폭력 의미 구성과 반성폭력 운동의 언어 생산과도 만나고 있어 토론도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3-14일 / 12월 17-19일

생존자 말하기 대회 사전 사후 워크샵 및 캠프

2003년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행사의 사전 사후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이번에는 말하기 참여자들과 기획단, 상담소 활동가들이 말하기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사전 워크샵과 말한 이후의 상태를 서로 보살피는 사후 캠프를 다녀

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용기를 지닌 그들의 여정에 언제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1월 26일

열림터 10주년 기념 “여악여락” 콘서트



위대한 여성 음악인들인 지현, 네스티요나, 윤복희, 윤미래, 이상은, 한영애가 출연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여악여락” 콘서트는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약 2,500여명의 관객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4일

2회 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대회



피해생존자의 말하기가 가지는 치유의 힘을 모으고 지지하는 자리로 180여명의 전국의 상담원과, 피해 생존자, 생존자의 지지자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기획단이 직접 제작한 설치전시와

여성작가들이 출품한 말하기의 의미에 대한 작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말하기 참여자들, 공감과 지지를 보낼 만한의 준비를 하고 온 듣기 참여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12월 6일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가이드 북 발간

이 가이드북은 친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위기개입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의 통합적 지원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피해 생존자를 위한 심리치료와 비가해 보호자 및 가해자 상담 등을 포함한 상담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상담자 및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13일

으랏차차 호신 가이드북 발간



이 책은 청소년들이 대상화된 몸에서 벗어나 자기 방어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자기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4명의 캐릭터로 구성된 중고등학생 '쑈-

네'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만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각본을 스스로 설계하면서 위험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대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이 책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2월 22일

한해 보내기 모임



2004년의 한해보내기는 좁은 상담소를 벗어나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내는 실내 장식을 붙이면서 두근두근 한해 보내기를 준비했습니다. 상담원, 이사, 자문위원, 피해생존자, 전 현직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회원 및 가족 80여명이 참석하여 2004년 한해를 돌아보고 2005년의 활기찬 활동을 기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게임과 열림터가족의 마술·춤 등의 장기자랑, 어린이 생존자들의 티없이 밝고 재미난 무대가 아주 특별했었습니다.

1월 28일

14차 정기총회



제 14차 정기총회에서는 2004년 월별 주요 활동과 행사를 소개하고 2005년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총회 이후



조중신 선생님이 10년 근속 기념 축하 선물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10돈 짜리 황금돼지!!! 다른 상근활동가들도 돼지꿈을 꾸며 10년 근속의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2005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2월 22일

수사 재판상의 디딤돌, 걸림돌 발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권수현 협의회사무국장의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분석”이 발표되었으며,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가족 3명이 나와 2차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이자 시민감시단장은 성폭력 수사·재판 디딤돌과 걸림돌을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시민감시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3월 6일

3.8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디딤돌 상 수상

97주기 3.8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1,2회 생존자말하기대회에 참가한 24명의 말하기 참여자들이 “디딤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의심받고 왜곡되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피해생존자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3월 8일

지하철 성추행 ‘공공의 적’ 캠페인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본 상담소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 “공공의 적”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지하철 수사대 신고요령, 폐 끼치는 남자들 사진전, 성추행 대처방법 등을 겪은 유인물과 성추행 범으로 오인되는 걸 방지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남성지침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담현황

1.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2,883건(48,544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5,982건(79%)이다.

2004년에는 총 2,505건(3,870회)의 상담이 접수되어 2003년 3,135건(4,871회)보다 약 20% 감소되었는데, 이는 2월 이후 야간상담 축소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2,475회(64%), 인터넷(메일, 게시판, 채팅) 1,027회(26.5%), 면접 345회(8.9%), 서신 23(0.6%)회였고, 지속상담은 전체 상담 3,870회 중 1,352회로 34.9%를 차지했다.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상담건수 중 성폭력 상담건수는 1991년 66.5%에서 2004년 9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본 상담소가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으로서 보다 성폭력 상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 연 도 | 상담회수 | 상담건수 | 성폭력상담건수 |
|---------|--------|--------|---------------|
| 1991.92 | 2,834 | 2,028 | 1,349 (66.5%) |
| 1993 | 1,765 | 1,182 | 841 (71.1%) |
| 1994 | 2,553 | 1,723 | 1,356 (78.7%) |
| 1995 | 2,050 | 1,238 | 1,021 (82.5%) |
| 1996 | 3,459 | 2,138 | 1,779 (83.2%) |
| 1997 | 3,424 | 2,295 | 1,647 (71.8%) |
| 1998 | 4,285 | 2,948 | 2,085 (70.7%) |
| 1999 | 5,397 | 3,692 | 2,564 (69.4%) |
| 2000 | 4,164 | 2,873 | 2,309 (80.4%) |
| 2001 | 4,995 | 3,593 | 2,869 (79.8%) |
| 2002 | 4,877 | 3,533 | 2,961 (83.8%) |
| 2003 | 4,871 | 3,135 | 2,839 (90.6%) |
| 2004 | 3,870 | 2,505 | 2,362 (94.3%) |
| 총 | 48,544 | 32,883 | 25,982 (79%) |

〈표2〉 2004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 연령별 성별 | 성인 (20세 이상) | 청소년 (19세-14세) | 어린이 (13세-8세) | 유아 (7세 이하) | 미상 | 총계 |
|-----------|-----------------|------------------|-----------------|---------------|-------------|-----------------|
| 여 | 1,497 (63.4) | 322 (13.5) | 253 (10.7) | 149 (6.3) | 45 (2) | 2,266 (95.9) |
| 남 | 46 (2) | 10 (0.5) | 17 (0.7) | 9 (0.4) | 2 (0.1) | 84 (3.7) |
| 남,여 | 2 (0.1) | 0 | 3 (0.1) | 2 (0.1) | 1 | 8 (0.3) |
| 기타 | 0 | 1 | 0 | 0 | 0 | 1 |
| 미상 | 1 | 0 | 0 | 0 | 2 (0.1) | 3 (0.1) |
| 총계 | 1,546 (65.5) | 333 (14.1) | 273 (11.5) | 160 (6.8) | 50 (2.1) | 2,362 (100) |

2. 2004년 상담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2〉의 2004년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266건(95.9%), 남성이 84건(3.7%), 남, 여 8건(0.3%), 기타(양성자) 1건, 미상이 3건(0.1%)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1,546건(65.5%), 청소년 333건(14.1%), 어린이 273건(11.5%), 유아 160건(6.8%), 미상 50건(2.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 중 '남, 여'로 분류된 것은 남매가 피해를 함께 입은 경우,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었다.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표3〉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935건(39.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765건(32.4%), 성희롱 323건(13.7%), 강간미수 96건(4.1%), 강간치상,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사이버성폭력/음란전화) 순으로 나타났다.〈표3〉

〈표3〉 2004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 유형 | 강간 765(32.4) | | | 강간 미수 | 성 추 행 | 성 희 롱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 카메라 이용 촬영 | 스 토킱 | 미 상 | |
|----|--------------|--------|-------|-------|-------|--------|-------------|-----------|-------|-------|-------|
| | 단순 강간 | 특수 강간 | 강간 치상 | | | | | | | | |
| 계 | 602 | 109 | 54 | 96 | 935 | 323 | 68 | 27 | 98 | 50 | |
| | (100) | (25.5) | (4.6) | (2.3) | (4.1) | (39.6) | (13.7) | (2.9) | (1.1) | (4.1) | (2.1)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 4〉의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 보면, 남성 2,305건(97.6%), 여성 37건(1.6%), 남녀 7건(0.3%), 미상 13건(0.5%)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2,005건(85.1%), 청소년 183건(7.7%), 어린이 52건(2.1%), 유아 30건(1.2%), 미상 92건(3.8%)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어린이가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도 82건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표4〉 2004년 성별, 연령별 가해자 현황

〈단위: 건(%)〉

| 연령별 성별 | 성인 (20세 이상) | 청소년 (19세-14세) | 어린이 (13세-8세) | 유아 (7세 이하) | 미상 | 총계 |
|-----------|-----------------|------------------|-----------------|---------------|-------------|-----------------|
| 여 | 29 (1.3) | 1 | 5 (0.2) | 1 | 1 | 37 (1.6) |
| 남 | 1,968 (83.4) | 182 (7.7) | 46 (1.9) | 29 (1.2) | 80 (3.4) | 2,305 (97.6) |
| 남, 여 | 6 (0.3) | 0 | 1 | 0 | 0 | 7 (0.3) |
| 미상 | 2 (0.1) | 0 | 0 | 0 | 11 (0.4) | 13 (0.5) |
| 총계 | 2,005 (85.1) | 183 (7.7) | 52 (2.1) | 30 (1.2) | 92 (3.8) | 2,362 (100) |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 보면, 아는 사람 1,887건(79.9%), 모르는 사람 389건(16.5%), 미상 86건(3.6%)의 분포를 보여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성폭력 피해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80%로 그간 여성단체들이 문 제제기해온 바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

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표5>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 건(%)>

| 아는 사람 1,887(79.9) | | | | | | | | | | | 모르는 사람 | 미상 | 총계 |
|-----------------------|-------|--------|--------------|--------|---------|--------|---------|---------|-------|-------|--------|-------|-------|
| 친족, 친/인척 268(11.4) | 직장 내 | 친밀한 관계 | 재임/소개로 만난 사람 | 동네 사람 | 서비스 제공자 | 성직자/신도 | 학교/학원 내 | 주변인의 지인 | 기타 | 총계 | | | |
| 친족 | 친/인척 | | | | | | | | | | | | |
| 136 | 132 | 634 | 158 | 105 | 124 | 105 | 12 | 225 | 115 | 141 | 389 | 86 | 2,362 |
| (5.8) | (5.6) | (26.8) | (6.7) | (4.45) | (5.2) | (4.45) | (0.5) | (9.5) | (4.9) | (6.0) | (16.5) | (3.6) | (100)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634건(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68건(11.4%), 학교/학원 내 225건(9.5%), 친밀한 관계 158건(6.7%), 동네 사람 124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과는 달리 기타 관계 중 주변인의 지인이라는 분류를 추가하여 어떤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지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다. 주변인의 지인으로는 남편이나 남자친구, 친구 등 가까운 관계의 지인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의 지인 등이 있었다. 전·현 데이트상대나 동거인, 남편은 친밀한 관계로 분류하였다.

이중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를 직종 별로 살펴보면, 교사나 교수 등 교육자에 의한 피해가 100건(4.2%),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58건(2.5%), 공무원 등 공직자에 의한 피해가 18건(0.8%), 목사 등 성직자에 의한 피해가 12건(0.5%), 경찰 등 법조인에 의한 피해가 10건(0.4%) 등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8.4%를 차지해, 여전히 사회지도 계층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2004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관련 동향

1)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소년법 적용의 문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간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청소년기 특성상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청소년기의 성적 호기심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구로 간주되어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역시 성인들에 의한 성범죄에 못지않게 폭력적이고 심각한 문제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9.6%(274건), 2004년 7.7%(183건)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들에 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82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윤간 등 특수강간이 18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추행이 75건(41%),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 이를 전체 성폭력 피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 가해자인 경우 강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피해자 역시 청소년인 경우가 87건으로 47.5%를 차지하였고, 어린이 46건(25.1%), 유아 31건(16.9%)으로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이고, 따라서 피해 연령의 특성상 피해사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6-2>

<표 6-1>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유형별 피해 현황

(단위: 건(%))

| 유형 계 | 강간 82(44.8) | | | 강간 미수 | 성 추 행 | 성 희 롱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 카메라 이용 촬영 | 스 토 킹 | 미 상 |
|--------------|--------------|-------------|------------|------------|-------------|-------------|----------------------|-----------------|-------------|------------|
| | 단순 강간 | 특수 강간 | 강간 치상 | | | | | | | |
| 183 (100) | 62 (33.9) | 18 (9.8) | 2 (1.1) | 4 (2.2) | 75 (41) | 7 (3.8) | 6 (3.3) | 5 (2.7) | 1 (0.6) | 3 (1.6) |

<표 6-2>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연령별 피해 현황

(단위: 건(%))

| 피해자 연령대 | 성인 (20세 이상) | 청소년 (19세-14세) | 어린이 (13세-8세) | 유아 (7세 이하) | 미상 |
|--------------|----------------|------------------|-----------------|---------------|------------|
| 183 (100) | 18 (9.8) | 87 (47.5) | 46 (25.1) | 31 (16.9) | 1 (0.5) |

2004년 전체상담 중 청소년 가해자를 고소한 건은 35건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년법 적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소년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중할 경우 범행의 동기와 죄질을 보아 형

사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강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조차 소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미약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본 상담소 상담사례에서 보면 같은 동네 여러 명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를 했으나, 보호감찰처분으로 나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전학과 이사를 한 경우도 있고, 공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해자 가족들은 참석하도록 했지만 비공개 심리의 원칙 하에 피해자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성폭력을 일종의 놀이 문화로 인식하고, 별다른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실천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인식 수준이 성인과 같지는 않더라도, 성의식에 있어서는 성인 가해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¹⁾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성년자라고 해 무조건적인 관대한 처우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처벌뿐 아니라 가해자 교육을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쉽고,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범죄 예방이나 건강한 성문화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1)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중 '가해자를 통해 본 성폭력'(권수현) 참고, 2004년

있다. 또한 성폭력이라는 잘못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 다른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사회정의는 실현된다는 믿음 속에 피해를 치유해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해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소년범의 연령하한을 현재 만12세에서 만10세로, 상한도는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하는 것과 소년법적용여부를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법원선주의의를 개혁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소년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눔터 47호(지금 법정에서는)에 실려 있습니다.

2) 가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심각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는 데 있어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가해자 측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이다. 2004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 가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2차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해사실 유포에 대한 위협(피해 사실을 허위로 주변에 알려졌다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지속적으로 직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는 협박), 신체적 위협(가해자 가족이 찾아와 납치 및 폭행, 욕설), 합의 및 고소취하 요구(가해자와의 결혼을 약속하며 고소취하 회유, 가해자의 장

래를 걱정하며 합의 및 고소 취하 호소) 등이 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합의나 고소 취하를 한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돈을 요구한 꽃뱀이었다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합의금으로 준 돈 뿐 아니라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달라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고, 피해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거나, 직장 및 일상생활 등에 문제를 겪게 되는 등 더욱 피해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가해자 가족들의 2차 가해로 인해 대인관계에 대한 실망, 불안감, 불신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으며, 고소 후 수사과정이나 공판 참여 시 보복 위험 등으로 인해 사건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축감을 경험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직장, 학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해 외출을 꺼리게 된다거나, 이사나 휴학을 하는 등 피해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건지원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이는 사건 해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가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는 한국 사회 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른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구하게 되나, 성폭력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합의하자고 협박한다. 피해자에게 있어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짚어내지 못한 채 가해자 측의 합의, 고소 취하 요구가 단순히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권리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지금으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가 가해자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인데 이것 역시 현실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2차 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피해자 및 가족, 주변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협박이나 위협에 대한 가중 처벌, 신변보호제도의 신설 및 강화,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의 제도화 등으로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건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상의 한계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회 전반의 낮은 인식 수준과 편견으로 인해 피해 직후 법적 인 해결에 나서거나 고소를 호소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실제로 1998년 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²⁾에 따르면 성폭력 중 강간과 강제추행의 발생률을 추산한 결과 신고·고소율은 전체 발생 건수의 6.1%에 불과하고, 본 성폭력 상담소 전체상담 중 고소한 건은 <표7>에 의하면 2002년 375건(12.7%), 2003년 422건(14.9%), 2004년 439건(18.6%)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고·고소율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³⁾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신고·고소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특히 친족 성폭력은 피해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문제제기를 하고자 해도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걱정, 가해자에 대한 이중감정, 생활기반에 대한 두려움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들 또한 즉각적으로 고소를 결심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⁴⁾

표7. 상담사례의 법적지원(2003-2004)

<단위:건(%)>

| 연도 | 성폭력 상담건수 | 법적문의 | 고소고려 | 고소건수 |
|------|----------|--------------|------------|------------|
| 2003 | 2,839 | 1,264 (44.5) | 573 (20.2) | 422 (14.9) |
| 2004 | 2,362 | 1,532 (64.9) | 704 (30.0) | 439(18.6) |

지난 해 친족 성폭력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현재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 상담을 한 경우가 약 95건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경우 적게는 3-4

2)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2」, 1998

3) 전반적으로 고소율이 20%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본 상담소 상담 중 고소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성폭력 피해자들이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또 이로 인해 법적해결 의지가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4) 본 상담소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은 2002~2004년까지의 각각 378건(12.8%), 316건(11.1%), 268건(11.3%)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의 약 10~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년 전 많게는 4-50년 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가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다. 이 같은 사례로는 자매들이 수십 년 전에 오빠에 의해 지속적인 강간 피해를 입었던 건, 어려서 사촌 오빠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최근의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가해자를 기억한 건, 언니가 최근에 집안 갈등을 계기로 가족 안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를 드러냈다가 동생에게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등이 있었다.

이 경우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피해가 장기화될 뿐 아니라, 피해가 중단된 이후에도 고통이 지속되기 쉽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가족들을 떠나게 되거나, 가해자를 피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취급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해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또, 피해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가족에게 배제되는 경우 등 피해자의 고통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해사실을 망각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숨긴 채 가정과 사회 생활을 영위해 간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시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

히 드물고, 대부분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모른 척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분노와 좌절감을 갖다가, 용기를 내어 상담을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워 갑갑한 실정이다.⁵⁾

이렇듯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겪는 현재의 고통은 인정되지 않아, 사회에 대한 실망감, 분노,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본 상담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특별법 개정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할 것을 주장해왔다. 최근 국가에 의한 의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배제입법을 통해 오래 전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보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역시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피해로 인한 고통이 '현재적'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5) 친족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성폭력이라고 인지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해일로부터는 최장 10년까지로 함).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가해자 측에서 주장할 경우, 법적인 구제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직장 내 성희롱 중 고객에 의한 피해 법적 구제 어려움

2004년 피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희롱 피해는 전체 성폭력 상담 2,362건 중 323건으로 13.7%를 차지했다. 이중 직장 내 성희롱은 211건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표8>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상사에 의한 피해가 158건(74.9%)로 가장 많았고, 동료에 의한 피해가 22건(10.4%), 고객에 의한 피해가 12건(5.7%), 거래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상사, 동료, 부하, 사업주 등 직장 내 관계만 제한적으로 구제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객의 경우는 업무관계로 밀접하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 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8> 2004년 직장내 성희롱 피해 중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건(%))

| 피해자/가해자 관계 | 상사 | 동료 | 부하 | 고객 | 거래처 | 기타 | 미상 |
|--------------|---------------|--------------|------------|-------------|-------------|------------|------------|
| 211 (100) | 158 (74.9) | 22 (10.4) | 2 (0.9) | 12 (5.7) | 10 (4.7) | 3 (1.4) | 4 (1.9) |

고객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의한 상담이 많은데, 음담패설,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욕설, 외모에 대한 평가, 훑어보기, 여성 비하적 발언, 무시하는 태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의 특성 상 사내 친절정책을 명목으로 하여 고객을 상대로 하여 화를 내거나,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4년 상담사례 중에는 전화로 서비스를 문의하던 중 부서를 자꾸 옮긴다는 이유로 일방적 성적 폭언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피해를 겪은 사례, 휴게소에 들르는 손님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좌절감, 근로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태도는 여성들을 ‘노동권을 지닌 인격체’로 보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들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고객에 비해 취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직 여성들에 대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행사하는 성폭력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각 사업장 내에서는 반성폭력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고객의 경우에도 직원에 대한 성희롱 피해 발생시 1차적인 보호책임은 지는 사규 등을 신설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증인출석이나 진술 등으로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객우선 정책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친절정책이 아닌, 성폭력 예방 등 여성인권에도 민감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열림터, 지난 10년을 반추하고 새로운 10년을 전망하다

조중신 _ 열림터 원장

지난 2004년 9월 14일로 열림터가 개소한지 10주년이 되었다. 열림터는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 생존자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터”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2004년 말까지 가해자와 분리가 시급한 피해생존자들과 전문적인 치유과정을 지원받기 원하는 피해생존자들 158명과 동반가족 31명이 생활해 왔다.

열림터는 절망 속에 있던 생존자들을 희망의 끈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지적이고 안전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더 이상 수동적이고 나약한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외치며 치유의 주체로서 강한 힘과 용기, 지혜를 가지고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10년이 생존자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을 다져온 시기였다면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생존자 지원방향을 숙고하고 전망해야 할 시점이다. 열림터 개소 10주년을 기하여 입소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사업을 펼치었다.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세미나, “통합과 치유를 향한 친족성폭력 지원상담자 워크샵”에 이어 효율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친족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관점과 정보를 담아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상담매뉴얼”로 정리하여 배포하였다.

다음은 열림터 개소 10주년 기념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사업”의 성과를 정리해 본다.

1.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세미나(2004. 10. 6)

열림터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한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상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또

한 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족성폭력의 특성과 사례개입에 대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다. 열림터 10주년 행사를 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치유과정에 감동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수고하는 실무자를 격려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행사를 위하여 지원사례 분석작업이 5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이를 자료집으로 정리한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과이다. 이전부터 활동해오던 친족성폭력연구회가 세미나를 위하여 재결성되고, 전문가 자문회의, 상담사례협의회 등을 통해 분석틀이 구성되고 사례분석을 해나가면서 피해자의 특성, 피해발생과정의 특성, 가해자의 특성, 열림터 생활의 역동, 치유과정에서의 지원현황 등이 정리되어 이를 토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표준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는 여성부에 정책 제안되었고 2005년 성폭력피해자 치유 표준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발제로 조중신 열림터 원장이 10년간의 상담지원 현황 분석을 발표한 후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의 전문화와 체계화에 대한 분야별 발제로 이해련 상담클리닉 원장이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김삼화 변호사가 “친족성폭력사건의 법적지원에서의 과제”, 신은주 사회복지학 교수의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의 진단과 전망”, 자립공동체 하담지기 원사의 “퇴소 이후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대안”이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10년의 장기적 방향성을 함께 전망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기념식과 축하행사에서는 열림터 입소자들이 그동안 작업해왔던 작품들을 전시하고, 열림터 초기부터 수고해온 분들과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떡나눔 자리가 뜻 깊었다. 더구나 아주 어린 시기에 열림터에 입소했다 퇴소하여 장성한 모습으로 참가한 피해생존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이론적인 대안보다 훨

씬 체험적이고 실증적인 치유로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통합과 치유를 위한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상담자 워크샵 (2004.10. 22~23)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심각하고 복합적인 친족성폭력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피해생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교육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친족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협의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2년차 이상 상담자들이 모여 작업을 같이 하는데서 오는 충족감과 유대감이 있었다. 상담소나 시설의 운영주체가 다양하고 상담자의 전공이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다양하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점검과 조율의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지역 차이에서 오는 운영과 교육기회의 어려움을 나누는 기회도 되었다.

상담자의 소진을 풀고 재충전하는 춤 세라피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춤 세라피는 상담자들이 대개 정적이고 지적인 경향이 높는데 몸을 풀어 감각을 일깨우고 땀을 흘리며 움직여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억눌림과 자제를 벗어던지고 참 자아를 만나게 해주었다.

워크숍 첫시간 소개와 참여동기를 나누는 시간, 수료식 후 평가, 토론, 나눔의 시간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1박하는 22일 밤에 자유로운 분위기의 자기소개와 토의가 이를 보완해 주었다.

박윤숙 상담원이 9개월간 지속상담해온 친부에 의한 피해 사례연구는 잘 정리된 발제를 통해 상담장면과 내담자의 변화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수퍼바이저의 치밀한 지도가 상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워크숍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였는데 1강좌 이상 빠진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1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주제를 연결하여 업그레이드시켜가면서 정기적인 워크숍으로 이끌어가는 결의를 다졌다.

3. 통합과 회복을 향한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 상담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04. 11. 30)

열린터 10년간의 상담지원현황 분석과 이를 토대로 진행된 세미나와 상담자 워크숍을 통해 취합된 내용을 친족성폭력 지원 상담매뉴얼로 자료화하였다. 친족성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내용은 1. 친족성폭력의 실태, 특성, 친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

하는 상담자의 과제 및 상담자 자신의 점검, 3.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및 가해자, 발생가정의 특성 4.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통합과 회복을 위한 상담과정 및 상담지침 5. 정서지원, 복지적 지원, 비가해 보호자(어머니) 상담. 친족성폭력 가해자 상담 6.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과 각 지원체계의 역할 등을 수록하였고, 부록으로 친족성폭력 관련 법률, 보호시설 주소록을 실었다.

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10여년 이상의 현장경험과 상담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성 심리치료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상담자문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였고, 여성학, 특수교육, 교육상담 전공의 교수들이 감수를 맡아주었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연구와 자료화를 체계적으로 도모할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친족성폭력연구회를 상시 운영하면서 상담사례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자료화, 보급,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피해생존자와 함께하는 상담자와 시설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으로 제작되었지만 친족피해를 생활 속에서 인지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주변사람, 사회복지사, 교사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우선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300개소 성폭력상담 관련기관(상담소, 시설, 쉼터, 등)에 배포하였다. 앞으로 전국 청소년상담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학교 교사,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경찰관에게도 배포가 되면 사회적 지지망이 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하담, 지난 1년의 이야기

원 사 _ 하담지기

하담이 문을 열고 한해를 벌써 보내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살림살이를 챙기고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서민자 후원회장님, 매번 하담에 대한 논의를 열심히 해주고 때마다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마음 써 주시는 깨비와 리산, 하담인들과 인연이 되어 프로그램 진행이나 개인상담을 해주셨던 혹은 하고 계시는 고경희/박승숙/이혜련 선생님/노미/모모, 하담의 뜻에 공감하면서 후원으로써 지지를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운영위원, 자문위원 선생님들, 또한 하담을 실제 운영 가능하게 지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상담소를 믿고 하담인에게 여행 등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국제부인회, 그리고 얼마 전 고춧가루를 가져다주신 조혜옥 상담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담지기의 고민을 물어봐주고 함께 마음을 써주는 우리 착한 활동가들~ 이 모두가 하담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담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하담인들의 공동체생활과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하담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겠지요? 하담~ 2004년 잘 보내고 이제 2005년도도 꽃꽂하게 잘 꾸려가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지지와 후원을 해 주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지난 1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처음 하담을 열었을 때, 막연하게 꿈꾸던 공동체란 느낌이 실감이 나서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 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가족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여성들간의 생활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 가리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다 한두명의 하담인이 세 사람, 네 사람이 되면서 그리고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우리는 현실 안에서 부대끼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함께 산다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던 자매

애는 때론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흔적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이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유사한 경험을 가졌기에 더욱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오히려 상처를 더 깊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함께 지내 온 하담의 지난 1년을 하담인들과 하담지기가 평가해봤더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담인 평가>

- 하담의 좋은 점 : 넓고 깨끗하고 안정적이다. 사람 사는 곳 같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어서 좋다. 그냥 마음이 이럴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 하담이 부족한 점 : 서로가 서로를 덜 배려한다. 자기 역 할(청소 등)을 잘 수행하지 않는다. 자립을 위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생활비가 부담스럽다. 상담소가 대외활동보다는 하담인들이 실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지에 더욱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담지기 평가>

하담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간 점, 하담인 회의 정착과 온라인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자체적인 하담생활의 의사소통 구조를 만든 점,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하담운영의 자립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하담의 정체성에 대한 혼선을 정리해내지 못하고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상담을 연계했으나, 하담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여름만 해도 저는 '하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당위에 많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담은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격려하면서 생활을 나누는 자매애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현실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 조건 등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매애는 시간과 노력과 잔잔한 애정 때로는 갈등 속에서 커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자립 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주변에 관심도 많고, 그만큼 새로운 형태로 잘 꾸러가고 싶은 욕심도 큼니다. 하담은 열림터처럼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는 쉽지는 아닙니다. 첫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았고 올해는 여성부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에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과 의지를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하담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2005년 하담은 여전히 조금씩 변화해나가며 몸살을 앓기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크게 변화할 부분은 세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취업연계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현재 하담에는 정규직 1인 이외에 2명은 파트직, 2명은 구직 중, 1명은 학생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좋은 노동 시장을 발굴해내기가 어렵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여러분 중 직업나눔, 일 자리 나눔으로 후원을 해주실 분을 알고 계시거나 직접 해주실 분은 꼭 연락해주세요.) 둘째, 장기적인 전망을 세울 것입니다. 하담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에는 윤곽이 뚜렷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하담인을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담아 잘 빚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단 여성부 지원이 실제 이루어지면 새로운 하담지기가 오게 됩니다. 그 하담지기는 하담인들과 소통하는데 초점을 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하담지기가 돌아가면서 하담에서 이틀씩 머물 것입니다. 하담인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우리려는 것입니다.

하담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호흡을 가져갈 것입니다. 2005년도 바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봅니다.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2004년

누런 달력 대신, 새것임을 한눈에 느끼게 하는 하얀 새 달력이 걸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폭력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서, 새해 우리가 열심히 발걸음을 향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지난 2004년 12월 2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한해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보냈던 다시다란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담진행 : 이미경(본 상담소 소장) 정리 : 나눔터 편집부

1. 반성폭력 '10대 뉴스' 로 돌아 본 2004년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2004년 역시, 우리를 분노케 하고 때론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성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짓, 목소리 하나가 매우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들 또한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어느 것 하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의미있게 느꼈던 2004년 반성폭력 10대 뉴스를 선정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① 밀양 성폭력 사건 -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경찰 및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우리를 분노케 했던 사건(12월).

② 아내 강제 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아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부부간에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한 유죄 판결을 선고.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법해석과 관행을 바로잡는 첫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8월).



③ 아동 성폭력 관련 법, 정책 마련 - 2003년 4살 된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진료거부로 36시간을 헤맨 사건을 계기로, 2004년 3월부터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 진술녹화를 의무화 함.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진술녹화실이 마련, 진술녹화 시행됨. 또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개소하는 등 어린이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정책이 마련.

④ 서울 북부지법 박철 부장판사 판결문 - '피해자 반응의 특이성의 형식적 측면만을 들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에게 강한 심리적·육체적 영향을 미쳐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를 참작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북부지법 박철 부장판사 판결문. 비록 1심이었지만, 성폭력 및 피해자의 보편적 특징을 고려한 판결문 구절 구절이 우리를 고무시킴(10월).

⑤ 부산 신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무혐의 결정 - 부산 신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 내림. 피해아동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채택에 있어서도 편향된 태도 등 어린이성폭력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우리를 분노케 했던 결정(1월).

⑥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 21명에 이르는 연쇄살인 행각으로 우리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귀가 및 복장 등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 가져옴. 이처럼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범죄피해의 책임과 예방을 여성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사회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가 열리게 됨(7월).

⑦ 군대내 성폭력 실태 조사 -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은 그동안 그 존재에 대해서는 널리 인지되어 온데 반하여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심각성 및 실태가 은폐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계속 방치되어 왔음.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국가인권위의 연구사업으로 군대내 성폭력 실태 조사가 이루어짐.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중 15.4%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음이 밝혀짐으로서, 군대내 성폭력 실태 및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됨 (2월).

⑧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 2004년은 우리사회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가장 큰 첫걸음을 내딛은 지 꼭 10년이 지난 해. 그 첫걸음 이후 우리가 어떤 걸음을 내딛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들이 모여 어떤 길을 만들어왔는지 돌아봄으로서, 반성폭력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의미가 있었음.

⑨ 성폭력수사·재판시민 감시단 발족 -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현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법을 적용, 해석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 속에서 성폭력 수사,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에서 성폭력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제도 및 법관행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시민감시단을 발족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의 상담소들이 수사, 재판과정 모니터링과 피해자인권침해 사례접수 및 이에 대한 대응 등의 활동을 할 예정 (10월).

⑩ 단지사건 무죄 판결 - 딸을 성폭력 한 남편을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데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손가락을 절단해 항의한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 서울고법 이호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었을 당시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학생기록부를 볼 때, 어린나이에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사법부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화된 상과 무지함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9월).

2.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느꼈던 변화들

2004년, 작년 한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앞서 '10대 뉴스'로 돌아보았다면, 아래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소속 상담소들이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체감했던 변화들에 관해 나누어졌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 경찰, 검찰 관계자들의 의식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듯...

- "경찰이나 검찰 등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이 체감되었던 해였다."



- “이제는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혹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서.”
- “맞다. 일례로 서울 중앙지법의 성폭력전담재판부에서는 증인 신문시 법정이 아닌 증인의 근무처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때 참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 “피해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힘든 점들을 호소하면 우리가 경찰에 항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태도가 변화하는 경우가 올해는 조금 많았다. 각 경찰서 별로 성폭력, 성희롱 관련된 예방교육도 강화를 한 것 같다.”
- “경찰서에서 여성폭력 인권을 위한 수사지침 같은 것이 경찰청에서 내려오면 그 교육을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수사경찰관, 형사과장 모아서 직접 강의를 했다. 수사팀이나 형사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된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의견 조정이 되기도 하고,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 정부의 변화 많이 안 느껴져...

- “정부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 “많이 답답하다.”
- “여성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모두 여성들을 위한 부처가 만들어졌다고 많이 기대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불만이 있어도 같이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지금 느끼는 것은 다른 부처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나는 의구심이 생긴다.”
- “여성부의 업무특성상 관료적 특성을 중화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나타났던 것 같다. 담당직원들은 미니부서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여성가족부로 바뀌고 나서 성폭력 등에 대한 업무는 오히려 뒷전이 된 듯하다.”
- “근본적으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생각이 편의에 따라 NGO라고 붙여지기도하고, 어떤 때는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말단 행정조직으로도다 가입하는 경우들이 보여진다.”
- “로또 복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생존자를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것, 복권기금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좋은 변화였다.”

○ 피해자들의 권리의식 높아져...

-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알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피해생존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지원경험들을 비추어 보면 진술이나 등등에서 피해생존자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 “과거에 비해 민사소송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느낀다.”
- “아동 성폭력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다. 그런데 피해아이 부모들이 이전에는 무서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던 것과 다르게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달라진 모습을 느끼게 되었다.”

○ **가해자에 대한 징제 및 재교육에 대한 주변인들의 태도 변화해가는 듯..**

- “일반인들의 반성폭력 의식도 높아져 가는 듯하다. 가해자가 소속된 공간 내 주변인들이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의가 주로 피해자였었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

3. 송구영신 - 운동가들의 새해맞이 고민과 바람.

마지막으로 2005년 새해를 맞이하며 전국성폭력상담소들이 현재 고민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식적 변화를...**

- “우리사회가 피해자 인권을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가해자 인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 “2005년에는 증거보전제도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려면 수사 및 공판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한번 녹음, 녹화를 한 것이 판사나 검사에게 채택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녹화 해놓았는데, 검찰이 그거 보면 부족해, 또 불러야 해, 판사가 보면 또 부족해 또 불러야 해... 이렇게 피해자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불러 다니는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다.”
-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이 반영이 되어줘야 하는데, 조사나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만 접근을 하면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




- “경찰서 조사과 등의 입구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안내, 지침’, ‘성폭력피해자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붙였으면 좋겠다. 현재 진술 녹화실에는 붙어 있지만, 대부분 생존자들이 경찰서에 가면 조사실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성폭력피해자는 따로 안전한 곳에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붙여놓아야 할 것 같다. 생존자가 자기 권리가 뭔지를 알 수 있게, 우리가 각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나 상담소에 붙여놓으면서 생존자가 그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고정화된 피해자상의 변화를 위해...

- “우리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생존자인권 하면 당당하지 않은가. 그런데 피해자 하면 보호로만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생존자의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니지 않나. 힘있는 생존자, 적극적 생존자의 모습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 같다. 이제는 고정화된 피해자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 “생존자가 주체가 되는, 도움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생존자 존중과 자원자의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 같다.”

○ 짧고 힘찬 각오들을 던지며...

- “변함없는 마음으로...”
-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지며 살자”
- “10년 후, 20년 후의 여성인권운동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생존자들에게도 지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그녀들의 목소리 세상을 울리다”를 마치고

어 린 _ 여성주의 상담팀



지난 2004년 12월 4일, 이화여대 LG 컨벤션 홀에서 듣기와 말하기 총 181명의 참여자가 모인 속에 5시간 반 동안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1회에 이어 생존자를 위한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 고민했던 준비기간. 그리고 망설임과 기대, 감동과 슬픔이 교차하는 속에서도 삶을 향한 의지와 용기를 내었던 생존자들의 말하기 대회를 돌아봅니다.

_ 나눔터 편집부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성폭력이라는 폭력, 고통, 위협, 좌절, 무력감 속에서 살아난(생존하고 있는) 용감하고, 힘 있고, 주체적인 사람을 뜻한다. 이 행사를 통해 그간의 피해자에 대한 고정된 상을 변화시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피해 생존자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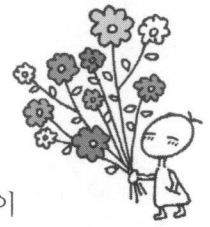
‘이야기 하며 얻는 치유의 힘’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까지 묻혀왔던 여성들의 경험을 “실재 하는 진실된 이야기”로 복원하고, 피해로부터 생존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 힘을 확인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장이다.

말하기를 통해 모든 아픔이 사라지거나,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피해자로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주체적이고 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피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성폭력을 둘러싼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사회 속에서 힘을 가져왔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생존자인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성폭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말함으로써 성폭력은 재 명명되고, 재 의미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 스스로 자기 몸의 주체가 되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004년 9월,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13명의 기획단이 모였다. 주 1회의 정기회의와 함께 생존자 지원팀, 기획홍보팀, 전시정보팀, 본행사팀으로 나뉘어 팀별 활동을 진행하며, 바쁜 일정 속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행사를 준비했다. 대부분 생존자로 구성된 기획단과 함께 생존자들을 만나고 이야기 하면서 성폭력이 무엇이나 에서부터 피해자와 생존자의 각기 다른 의미, 말하기와 듣기를 통한 치유, 이 행사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해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 같지만, 이 행사를 만들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힘, 고민이 쌓이고, 보태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존자인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었다.



‘2회에서 깨달은 것들’

‘말하기 참여가 적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로 참여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이러한 장이 얼마나 필요로 되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행사를 거듭하면서 단지 장을 펼치는 것 뿐 아니라, 보다 훌륭한 소통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다.

1회 행사에서는 성폭력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주목했다면, 2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를 좀더 세밀히 살피게 되었다. 앞으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언어와 표현방법을 쓸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잘 말하고, 잘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가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생존자와 생존자, 그리고 생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데 어울리는 좋은 소통공간을 만들어 가게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 행사의 주요한 특징인 ‘집단적인 말하기의 힘’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은 어떤 효과로 정리해서 이야기 하긴 이르지만, 큰 집단 안에서의 말하기와 듣기, 소통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말하기나 소그룹에서의 말하기와는 다른 차원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더라도 비난이나 평가 없이 대중들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더 이상 숨기거나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생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 내가 느낀 감정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에 압도되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힘 있는 상태에서 경험과 감정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고민의 지점들...’

그러나 이런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볼 지점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우려스러웠던 점 중 하나는 ‘난 아직 말하기를 할 정도는 아닌데...’, ‘난 아직 생존자라 불릴 수는 없지만...’이라며 참가 동기를 밝히는 생존자가 의외로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생존자라는 새로운 명명이 어떤 피해자에게는 부담스럽고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게 했다.

생존자 말하기 대회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도달한 사람만은 아니다. 이러한 말하기의 장을 만드는 것은 어떤 류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도, 어떤 정형화된 이야기나 모습을 원해서도 아니다. 물론 힘 있는 생존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 “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단지 말할 수 있음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음, 그리고 지금껏 살아왔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징한 경험들이 독하게 살아 숨쉬며,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 안의 힘을 되살려 의지를 북돋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 이후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혼란하고, 세상살이가 힘들게 느껴진다고도 하셨다. 또, 다른 여러 사람의 경험을 들어야 하는 고통 또한 있기 때문에 단지 짐이 덜어지기만 하는 행사 같지는 않다는

소감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집단적이고 공개화 된 장에서의 말하기 경험은 그 이전보다는 힘을 얻고, 힘을 발휘했던 기억으로 기억된다는 점이다. 성폭력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결국 말할 수 없음에서 말할 수 있음으로 힘 있게 변화한다



는 것이며, 말하고 싶음은 곧 나아지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의지 그 자체이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나와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더라도 힘겨운 경험을 했지만, 살아나고, 살아온 사람들, 또 삶의 강한 면들을 깨닫게 하는 무척 감동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현실에 대해 알수록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남은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서 또한 힘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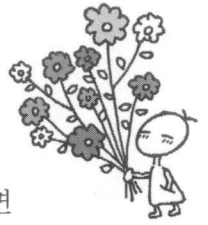
3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여물었으면 여문 모습 그대로 상처를 드러내고, 아팠다고, 지금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장. 마음을 열어 아팠던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장으로 거듭 나갈 바란다. 혼란과 모순이 없는 무결한 장이 아니라 그렇기에 더욱 만나서 이야기 하며 변화하고, 함께 고민하는 장이었으면 한다. 생존자란 힘이 있어야만 한다거나, 정리해서 말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이야기를 풀어 놓고, 때로는 자기 안의 모순도 느끼고,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이면 좋겠다.

‘바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특별한 것이 되지 않길 바란다.

말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걸고, 무게가 느껴지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는 것이 무겁고,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더 가벼워지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적인 힘이 전시와 본행사에 녹아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다 풍부한 자기 정체성, 생존
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하기에 나서
는 것은 비단 사회적인 편견을 넘어서는 것 뿐
아니라, 생존자의 내면 속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가 여
성에게 치명적인 것은 자아를 파괴하고, 부정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자신을 긍정하며, 자신의 경험

에 대해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힘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아의 혁명이며, 거대한 변화일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척 많은 힘이 필요하다. 더구나 낮은 타인들 앞에서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언급하기 힘들었던, 치명적인 부분 중의 하나로 여겨온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이 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치유에 대한 정답을 내긴 어려울 것 같다. 단지 만약 이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치유의 시작에 불과하다. 일단 말을 하고나면 더 말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은 의지가 솟을 수 있다. 정리하여 말하고 싶고, 계속 정리하고 싶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원하는 순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장이 더욱 다양하게 자주 펼쳐지는 것이다. 이 하나의 장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장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장이 열려야 한다.

그리고 듣기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좀더 진척되어야 할 것 같다. 좀더 집중해서 말을 잘 듣는 연습과 더불어 그리고 들은 바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직은 말하기 이후에 다가가 소감을 전달하는 것이 일방적이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하는 분위기 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더 원활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덧붙여 지금까지 견뎌온 상처의 무게보다 치유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처는 조금 더 가볍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그것은 견딜만한 어떤 것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두려워 사람을 만나 치유를 해가는 데 있어 겁내고 미리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이라면 더 좋겠다. 물론 보이고 싶은 모습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의지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추고 싶던 모습이 밝혀져 나왔더라도 그것을 편안하게 편견없이 거리낌 없이 받아준다고 믿어지면 비로소 더 진실되게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런 장이 되도록 서로 좀더 신뢰하고 기댈 수 있으면 좋겠다. 좀더 따뜻하고, 편견없이 받아 주는 넉넉한 모습이 늘어갔으면 한다. 다시 힘든 순간이 찾아들 때 꺼내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기억이 되도록...



말하기 대회 이후

세상은 장미빛이 아니지만...

푸 하 _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기획자

말하다.

라는 단어 뒤에 이런 '고통스러움'이 숨어있다고, 이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성폭력을 화두로 꺼내기 시작하면 어떤 행위든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없다. 말하기든, 듣기든 혹은 그 무엇이든. 1회 말하기 대회 때 그 하나하나의 역사를 공감했던 경험이 내내 잊혀지지 않았다. 괜찮아진 줄 알았으나 의외로 괜찮지 않았던 나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이 행사로 나를 밀어 넣고야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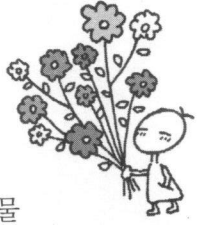
사실, 되도록이면 성폭력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을 직면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게 될 그 무엇도 두려웠다.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낱알이 들춰 내 후벼 파고 말 것이 너무나 빠른 이 행사의 중심으로 그러나 결국 돌진해버리고 만 것은, 어쨌거나 내 인생에 한번쯤은, 그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휘몰아치는 업무가 아니라, 약 두 달 간의 준비기간 내 내 수십 번도 더 해야 했던 내 경험의 되새김질이고, 순간 순간 맞닥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피흘리는 경험들이었다. 상담경험도 없는 나로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감정을 죽이고 단어를 골라가며 말하는 것도, 감정이입을 하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며 듣는 것도 쉽지 않았다. 행사 때 말을 할까 말까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마음을 바꿔가며 잠이 들 때마다 고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말하고 난 뒤의 나는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 기대들로 행사장을 찾을 수많은 생존자들을 맞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저 상처를 다스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는 정도, 편하게 이야기 하고 열심히 들을 장을 마련하는 정도. 그 외엔 모두 참가자들의 몫이다. 말을 하고, 고통을 나누고, 끝없이 지지하는 것 모두. 그런 행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었고, 또한 어려운 지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과정의 끝엔 뛰어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해 준 감동스런 생존자들의 용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성폭력 경험을 말하리라 마음먹고야 마는 생존자들의 결심 뒤엔, '나를 잃지 않겠다'는 의연함과 바닥을 치고 솟아오르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존재한다. 그 고통스런 순간을 곱씹으며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나는 생존자들의 모습엔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기대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도 했지만, 또 즐겁기도 한 일이었다. 영상 작업 기획한다며 밤을 새고 하는 회의도, 입이 딱 벌어지게 커다란 복도 유리창을 가릴 걱정을 하며 행사장 밖에 전시할 이런 저런 것들을 함께 구상하는 것도, 상담소 지하에 거의 출근하며 소품을 위한 미싱질이니 바느질이니 하는 가내수공업에 몰두하는 것도, 행사 때 쓸 갖가지 물건들을 사다 나르는 것도 재밌는 일이었지만 가장 즐거웠던 것은 아무래도 함께 했던 기획단 친구들과의 농담따먹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_-;;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한 전우들에겐 각별한 애정이 싹트기 마련인지 엠티에서, 워크샵에서 각자의 힘겨웠던 경험을 공유한 기획단 친구들과의 만남은 내겐 늘 들뜨고 신나는 자리였다. 생각 같아선 전년도 한 일주일정도 뽀대나게 진행해 보고도 싶었고, 말하기 본행사도 한 2박3일 산 좋고 물 좋은 어딘가에 짱박혀서 줄줄이 줄줄이 속내 얘기를 엮어내 보고도 싶었다. 본행사 때 미흡했던 점도 내내 마음에 걸리고 아쉬운 것도 많이 남는 행사였다. 그러나 말하기 대회 이후, 예상대로 세상은 장미빛이 아니지만 케케묵은 상처와 맞장을 뜨고 난 지금, 나는 조금 괜찮아진 상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괜찮아지는 말하기대회가 앞으로도 쭉~욱 이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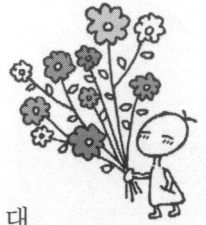
참가신청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 말하기 대회

두 나 _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기획단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가끔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던 그 때가 떠올라 그리운 마음이 들곤 한다. 수차례의 기획단 회의, 워크샵, 말하기 참여자 사전 모임, 말하기 대회, 그리고 행사 후 치유캠프와 평가회의까지, 이 짧지 않은 여정을 기획단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내가 맡아서 했던 일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말하기·듣기 참여자들의 참가 신청서를 받았던 것이다. 솔직히 처음에는 참가자 명단을 관리 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200명 가까이 되는 참가신청자들이 고민하며 써 보내준 소중한 참가동기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참가자들이 참가신청서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생존자 말하기 대회에서 말하기에 참여했던 분들만 말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기 참여자들 중 많은 분들이 참가 동기를 쓰는 과정에서 이미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참가동기에는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아픔을 딛고 일어나고픈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피해 생존자들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싶어하는 참가 신청자들의 소망과 기대로 가득했다. 참가 신청서에 써 보내준 이러한 듣기참여자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분리되어,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가지는 치유의 힘에 대해,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획

단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제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날, 나는 개인적으로 듣기참여자들과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듣기 참여자들의 참가동기를 읽고 또 읽어서인지,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듣기 참여자 한 분 한 분을 볼 때 마다, 너무 반갑고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듣기참여를 결심한 그분들과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말하기 참여자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와 더불어, 듣기 참여자들의 용기 있는 듣기 덕분에, 제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날 듣기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말하기를 했던 용기 있는 듣기참여자들에게 지지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걸음이 느린 아이

거 북 _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기획단

‘아직도 할일이 많은데 후기라니’ 라고 ‘치유의 길동무’ 수첩 기획단 후기에 적었다. 후기 쓰기 힘든 이유가 그 땐 정말 할일이 많아서 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도 여전한 걸 보니, 아마 그때도 일 때문만은 아니었지 싶다. 말하기 대회와 이를 둘러싼 시간을 말하는 것, 지나고 나면 좀 쉬워질 줄 알았더니, 어느 것 하나 쉽지만은 않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라고 말하며 시작했던 말하기대회, 스스로 의사소통장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던 터라, 어쩌면 뭔가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웬걸, 백만개쯤 되는 질문이 되려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 답을 기대하고 췌던 해답지가 더 어려웠다고나 할까. 녹녹치 않은 고민의 무게에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면, 혹여 나 때문에 말하기 대회가 엉망이 될까 발걸음이 무거워져, 느린 걸음이 더 느려지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리고, 막상 준비하던 날이 되자 나는 정작 무엇인가 놓고 온 기분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 때의 급함이 다시 보인다. 내내 마주 보아야 했던 내 상처들이 나아지느라, 나와 다른 상처들을 만나 반응하느라, 그리고 느리게 움직였던 것 같다. 느린 걸음 옮길 수 있었던 건, 나와 같이 이리 저리 허덕이던 동급 모지리(?) 그녀들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긴긴 회의, 엠티, 짜릿한 워크샵, 그 수 많던 수(手)작업들을 나누며 만든 힘이 걸음이 느린 나를, 이 길 위에 오래 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답이 아니라 바램이 우리를 이끈다



시 타 _ 본 상담소 사건지원매뉴얼 기획팀

: 지원자를 위한 가이드북,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를 내고

가이드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피해자가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동일범에 의한 피해자가 세 명인데,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피해자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 아직도 날 믿지 못하는 걸까?”

사건 지원을 하다 보면 다양한 정체성/조건/위치/요구를 가진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내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막상 사건지원을 시작하려 할 때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워지기도 하고, 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좌절하기도 한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고민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 주는 가이드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받고 이제 막 여성운동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상담전문단체에서 오랜 활동을 해온 사람에게도, 아니면 학교나 지역, 회사 등에서 뜻하지 않게 부딪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폭력 피해자를 도우려 하는 사람에게도, 사건지원과 상담의 길잡이가 되어 줄 가이드북에 대한 욕구는 분명 있지 않을까 한다. 성폭력 사건을 ‘지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북 <성폭력 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는 그런 가이드북의 필요성을 절감한 적이 있는 지원자들에 의해 기획되었다.

지원자가 만난 어려움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치유야말로 사건 지원의 큰 목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큰 목표에 이르는 길이 한 가지만 있지는 않다. 어떤 정해진 답으로서의 좋은 해결방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폭력사건지원의 구체적 목표와 방법은 피해 생존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사건 지원이란,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피해 생존자가 가지게 되는 다양한 욕구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생존자의 치유를 지원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치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만들어가기 위한 길 찾기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훌륭한 가이드는, 해결 방법 모색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의 소통이다. 사건지원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때 순간마다 지원자는 피해자의 이야기와 욕구를 매우 세심하게 묻고, 또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야기를 맥락적으로 ‘잘 듣는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데에서 많은 고민들이 시작된다. ‘잘 듣는다’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걸까? 그렇지만 또,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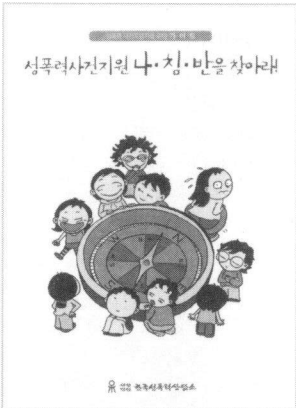
그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언어의 한계에서 온다. 성폭력이 ‘정조’ 침해가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여성 자신의 권리, 성적 자율성, 인간의 통합성을 침해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남성의 소유물로 정의하는 기존 가부장제 사회의 인식체계를 비판하고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때 비로소 등장하는 인식이다. 여성주의는 새로운 인식론이자 정치학이기 때문에, 몸, 성, 폭력, 인권에 대해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힘과 자리를 제공한다. ‘여성주의 시각을 갖추는 것’이 성폭력 사건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성폭력 피해 경험을 여성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시작된 지는 겨우 20년을 넘었었을 뿐이며, 지원자와 피해자 모두 평생 매일을 남성의 시각이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누구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지(혹은 여성의 언어로 말해도 되는지) 갈등하게 되며, 지원자 역시 자신의 언어, 상상력, 관점의 한계와 싸워가면서 사건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언어와 인식을 가진다 해도 그것을 현실의 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여성에게 없을 수 있다.

이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거나 물러설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지만 도울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기도 하다. 지원자와 피해자 사이의 ‘차이’라는 문제에서 특히 그렇다. 가령 이성애자인 지원자는 동성애자인 피해자가 사건을 공개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 가질 수 있는 아웃팅(outing)에 대한 두려움을 잘 모를 수 있다. 혹은 서울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온 지원자라면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에서만큼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거나 도움을 청할 여성단체가 많지 않다는 피해자의 상황을 놓치고 갈 수 있다. 지원자와 피해자 모두 ‘특정한’ 위치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는 항상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이든 지원자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피해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다.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 같은 여성”이라는 말이 나의 경험을 보편화하고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건 우리가 똑같이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이’가 있기에 사건 지원 과정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과정이 아니라 지원자와 피해자 모두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기존 남성언어와 남성중심 사회의 해석틀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잘 말하고 듣기 위해 새로운 언어부터 만들어야만 한다는 어려움을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와 장(場)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 시각은 새로운 언어를 상상하게 하고, 새로운 언어는 변화를 위한 운동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가이드북에 실은 내용은

그래서 <성폭력 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에는 어떤 상황이나 고민에 대한 ‘정답’ 제시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이 생길 때 그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우선, 가이드북의 1장은 사건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지원자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사



건지원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해 보아야 할 자신의 관점과 원칙을 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 사건지원의 전반적인 지도와 단계를 그려보고 사건지원 과정에서 짚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지원자 스스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상황별 사건지원에서는 '정보'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대학 내 성폭력, 유아 성폭력, 동성간 성폭력, 운동사회 성폭력, 친족 성폭력 등 특정 '상황'에서 지원하면서 느끼게 되는 살아있는 고민과 딜레마, 지원자로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담았다. 2장에서는 기획팀이 만났던 많은 지원자들이 경험했던 갈등과 고민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들을 모아보고, 책을 읽는 사람 역시 '자신의 대답'을 찾아보도록 제안한다. 그리고 "나는 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역사와 경험을 지닌 지원자들이 자신의 이야

기를 풀어 놓기도 한다. 3장은 우리를 둘러싼 현재의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반성폭력운동을 한다는 것, 피해자 중심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사건을 지원한다는 것의 의미와 방향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여년 동안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가 이루어 낸 성과 속에서 이제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확인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장에 실린 다소 무거운 글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4장과 쉬어가는 페이지 <힘 모아 힘을 줘>에는 피해생존자의 치유의 길에 동참하는 읽을거리 목록들과, 지원과정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변화에 대한 바램이 우리를 이끈다

지금에 와서 털어놓는 이야기이지만, 이 가이드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아주 심하게 더웠고, 그만큼 힘들기도 했다. 대부분의 글들이 서너 번씩 고쳐 쓰여 졌으며, 단어나 문장 하나를 놓고 몇 시간씩 토론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인쇄소에 최종 원고를 넘기는 순간까지도 고민이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가이드북을 만들자고 모인 사람들 모두, "나야말로 이 고민에 대해 답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정답'이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책을 만들자고 모인 이들부터가 자기 안에 쌓여 있던 질문과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함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답에 대한 간절함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을 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정답'에 대한 욕망 대신 변화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런 마음이 더 여러 가지 답들, 더 도움이 되는 새로운 답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폭력 사건 지원에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건, 답해야 할 질문이 사건 지원 과정에서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가 변화한 만큼 그 다음의 변화를 꿈꾸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맞닥뜨린 고민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혹은 활동가로서의 삶이 너무 정신없이 바쁜 속도를 요구해서 깊이 생각해보거나 함께 나누어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민들이 있다면, 이 책이 '하나의 답' 대신에 수많은 답을 가능하게 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지원자들에게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지금까지의 운동 성과들을 딛고 그 다음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를 소개합니다!



① 나왔다! 호신가이드~

2004년 12월, 많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가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산뜻한 디자인, 꿈틀대는 제목~

뭔가 상담소 자료판매 스테디셀러의 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호신가이드북 속으로 빠져~볼까요?

*구입 및 강의문의 02)338-2891 / 권당 5000원

② 여성주의 호신이란

"여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었다면 왜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자기보호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자기방어훈련 - 우리는 왜 이 책을 만들었는가?

낮설지만 짜릿하게! '여성주의 호신'과 10대의 만남을 제안하는 페이지

*더 심층적인 논의는 변혜정 부설 연구소장과 조허은주 팀원의 논문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③ Guide

경험과 공감에서 피어오르는 방향성과 개념 못지않게 제작팀이 고민한 것이 바로 책의 형식과 구성.

맥락과 서사가 삭제된 피해 상황 나열은 끔찍이 싫었고 분노와 좌절, 두려움의 감정들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Guide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캐릭터 4인방과 그들의 이야기 - 근데 왜인지 이들이 낯익지 않으셨어요?

*A급 삽화가 Dnool의 다른 그림은 ildar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④ 오호~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

"지하철에서이런사람제일싫다 BEST5"를 발표하는 네 캐릭터 앞에 짤~ 하고 나타나는 1998년도 "지하철 성추행 방지를 위한 퍼포먼스"

사진과 자료- 역사적인 반성폭력 싸움을 소개하는 이 작은 꼭지는 독자에게 이렇게 건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2005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본 상담소 행사로 "지하철 성추행, 공공의적" 캠페인도 했었던답니다.



⑤ 갈파워도장

1강 '마음속 싸움의 크기를 키워라' / 2강 '못해서가 아니잖아'

호신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배우고 훈련하는, 이름부터 멋지구리한 곳 -

왜 할 수 없어왔는가? 질문을 되돌리는 갈파워도장이지만, 2005년 2월 월간언니네 리포터fokus 모래님의 비평처럼 완벽실전까지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할 겁니다. 고민해 볼 과제겠죠 -

*당신의 수련기도 올려주세요 온라인 갈파워도장 <http://www.unninet.co.kr/ekkekk/>



⑥ 우리들의 법적권리는?

갈파워는 고통을 차는 법을 연습한다고 생겨날 수 없습니다. 공격당하지 않을 권리, 공격에 반격할 권리 뿐 아니라 피해 이후 피해자로

서의 권리, 가해자를 처벌하고 보상받을 권리까지 사회적,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적 공격에 대한 10대 여성의 현행법상 권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가해자들이 하도 성폭력법을 꿰고 있는 세상이라, 법적권리 교육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⑦ 성적공격들은 멀리 있지 않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친밀한 관계의 성적공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공격을 강조했던 기존 호신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다면 이 책 중 세 장 - 남자교사의 성희롱, 친족 내, 연애편계에서 - 은 더 어렵고, 그렇지만 더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낯선 vs 친밀한 관계 속 성적공격"은 부설 연구소 기획 성교육 비디오

"R U Ready? 지금 우리는" 에서 다시 만나보세요. 2005년 4월 출시예정.



⑧ 에필로그 - 으랏차차 파이트백 대작전은 계속된다!

책 마지막을 장식하는 네 개의 분홍색 페이지에는 이 책의 주인공 효호, 오매, 로미, 키라의 에필로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갈파워 서포터즈 소속 체육교사들과 호신술 프로그램 개발' 등 호신가이드팀의 구체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앗, 관심 있으시다고요? 아이구, 그럼 얼른 연락주세요!

*관심/제언 등이 있으신 체육교사, 보건교사, 성교육강사, 경찰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 나와

권주희 _ 여성주의 상담팀

2005년 1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민사4 단독 양정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위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고통으로 기억을 일시 상실하는 등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로서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신분, 위 강간치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상황,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고 하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2001년 12월 당시 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입어 군 검찰청에서 수사하다 가해자가 제대를 하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으나 2002년 10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피해자에게 피해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직후 친구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기록과 산부인과에 간 것,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주변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면서, 가해자의 주장(교제하던 중의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04년 2월에 낸 헌법소원도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성폭력 직후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기록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점, 가해자 주변에 피해자를 알고 있는 친구 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 특징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사귀어 왔다거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상담현장에서 느껴지는 현행 법률에서 개정, 제정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봅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이와 같이 이번 판결은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여성통계」(2004)에 의하면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998년에는 접수된 9,480건 중 4,871건이 기소되어 51.4%였지만, 2001년 46.4%(8,628건 중 4,005건), 2002년 46%(8,186건 중 3,768건), 2003년 45.2%(8,713건 중 3,935건)로 일반사건의 기소율(56%)보다 낮음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권의 행사를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불기소처분이 검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독단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된 것을 제외하면 불기소처분 이유는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 없음’이 40%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상담소의 다른 사례에서도 법이 성폭력을 규정하는 최협의의 ‘강제성’과 ‘항거불능’의 여부에 대해 검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양 상안부를 눌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거짓말 확률이 98.2퍼센트에 이른다는 내용의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함.
- 피해자의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을 인정키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키 어려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항고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에 어렵게 법에 호소를 했음에도 이와 같이 검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소여부가 결정된다면 피해자는 기본적인 사회규범조차도 자신의 피해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며 피해에 대해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거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피해자가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당당히 주장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와이의 어린이 인권보호¹⁾

이미경 _ 본 상담소 소장

지난 해 11월 초 어린이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일해오던 NGO 활동가, 법조인, 교수 등 10여명이 '하와이 아동보호체계 연수'를 다녀왔다. 작렬하는 태양아래 야자수와 와이키키 해변으로 유명한 관광지 정도로 알고 있었던 하와이는, 아름다운 자연만큼 어린이보호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 새로운 인상으로 다가왔다.

미국에서는²⁾ 약 20%의 여성들이 아동기에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하며, 하와이에서만도 연간 3,500여 아동학대사례(신고는 6,000건) 중 5%가 성폭력 피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1970년대 이후 '아동학대예방및치료에관한법', '아동폭력방지법', '국가아동보호법', '성폭력 가해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운동과 아동보호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이 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 대책의 기본틀이 되고 있고, 의사, 교사, 아동보육사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를 두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의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996년에는 연방법

1) 이 글에 도움을 주신 '하와이 아동보호체계 연수단'의 일원이었던 이명숙(변호사, 본 상담소 이사), 조인섭(변호사, 본 상담소 법률 자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Boston Women's Health Book Collective(1998), Our Bodies, Ourselves: For the New Century, Simon & Schuster.
윤덕경, 정명희(2004),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4), 「선진 각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미국, 영국, 호주」.

으로 메간법(Megan's Law,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이 제정되어 미국내 5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고위험군 성범죄자에게는 강제입원조치와 성욕 저하를 위한 약물투여 등 강력한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법무부에서는 국립 가정폭력, 성폭력 핫라인을 운영하고, 국립성폭력자료센터가 있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료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무소와 여성폭력방지 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들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성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이하 CP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일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에서 연수 기획자인 변호사 로렌(Lorenn)과 보건복지부내 가족, 폭력 예방관련 공무원, 검사, 교수, 가정방문 프로그램 담당자와 수혜 어머니, 청소년자조집단 진행자들과의 대화로 시작되었다. 이어 여성?아동의 료센터, 자립공동체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컨스왈로 재단, 피해 어린이 치유의 농장, 어린이지원센터, 가족중재센터, 와이키키 건강센터를 방문했다. 또한 하와이 가정법원에서 가사재판 방청과 하와이 최고 재판소 주임판사를 접견후,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체계 행정관 및 현장실무자인 사회복지사들과 피해아동지원활동의 경험을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은 몇가지 제도와 인상깊었던 단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와이에서는 “건강한 시작(Healthy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이의 탄생과 함께 초기단계에서부터 위험의 요소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에서는 공무원 1인당 20가구 이내를 담당하고 있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 남자직원도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동은 위탁가정으로 보내지고, 1년 이내에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을 시켜 아동에게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게 국가가 아동보호를 위한 강력한 개입을 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보였으나, 한편 그 부작용 등 고려할 지점이 많아보였다. 특별히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아동과 관련된 친척, 가족, 교사, 교회관계자, 담당전문가 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피해아동지원 문제를 상의하고 개입하여 실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하와이인들의 문화적 특성이 묻어나는 것이라고



을 박탈하고 입양을 시켜 아동에게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게 국가가 아동보호를 위한 강력한 개입을 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보였으나, 한편 그 부작용 등 고려할 지점이 많아보였다. 특별히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아동과 관련된 친척, 가족, 교사, 교회관계자, 담당전문가 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피해아동지원 문제를 상의하고 개입하여 실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하와이인들의 문화적 특성이 묻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범죄피해 회복의 합의도출 과정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카피오라니(Kapiolani) 여성·아동의료센터”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연간 300만불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며, 수년 전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지금 당장 피해를 입은 생존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여성, 남성들에게 무료 상담과 의료적, 법적 지원을 한다. 특히 2명의 의사가 24시간 근무하면서 4년전에 보건복지부와 피해자들의 자문 및 의견을 모아 만든 표준화된 키트로 치료와 함께 법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을 한다고 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성폭력과 관련해 아동이 병원에 오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위기개입 담당자를 만나서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게 자료를 준다고 했다. 여성·아동의료센터만 돌아보아도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에서는 성폭력 대책의 법과 정책이 훨씬 일찍 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생존자 지원을 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어린이 치유를 위한 “호아이나 오 마카하(Hoa'aina O Makaha)농장”이다. 이 곳은 25년전에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해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고 있는 곳으로 마카하 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6,000여평의 농장이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는,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에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땅에 대한 신념이 묻어나는 후덕하면서도 사회운동가로서 강한 인상을 주는 분들이었다. 이곳의 설립이념은 하와이언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결집력이 강한 종족들이었는데 미국 자본의 침투로 삶의 터전인 땅을 빼앗기면서 폭력이 심해졌다고 보고, 흙을 통해 인간성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 특히 땅에 씨를 뿌리고 자라는 것을 보며 추수해서 요리해 먹는 전 과정을 통해 땅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

이 농장의 주요 방문객은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인데, 성폭력과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많으며, 전교생이 돌아가며 농장에 와서 활동을 한다. 또한 타지에서 매년 5,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곳을 방문하는데, 눈을 감고 자신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명상을 하고, 직접 농작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흙과 자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배운다. 이곳의 운영은 2명의 교사를 교육부에서 지원 받고, 일부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며 생산되는 수확물을 판매하기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충당 한다고 한다. 또한 옆의 학교학생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에게는 1불 50센트씩의 참가비를 받는데 실제 경비는 1인당 2불 이상씩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농장 입구부터 모임터 등에 붙여있는 어린이와 자연을 존중하는 내용의 글귀들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린이지원센터(Children's Justice Center)”는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한다. 미국 전역에 500여개 정도 있고, 운영 형태는 각 주마다 다양하다. 하와이의 이 센터는 CPS, 경찰, 검찰, 의사 등 모든 관련기관의 담당자들이 이곳에 파견되어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각 지원사례마다 담당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함께 회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특히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은 피해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 하는데, 담당자인 월터 김(Woletta K. Kim)이라는 여성경찰은 이 분야에서만 10년동안 일해왔고, 12월에 정년퇴임을 한다고 했다. 또한 주의산만이나 정신지체 장애 등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인터뷰 할 때는 심리학자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진술녹화실도 연령별로 따로 준비되어있었고, 다민족 사회답게 아이에게 질문하는데 사용되는 그림과 인형소품들도 다양한 인종을 모델로 마련한 섬세함이 돋보였다. 우리나라도 작년 3월부터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는 진술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단계라 시설도 매우 열악하다. 또한 성폭력 수사 전담반이 있지만 1~2년이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는 인사제도로 인해 전문 인력의 양성이 어려운 것에 비해, 이곳의 진술녹화제 운영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신뢰가 갔다. 무엇보다 10년이 넘는 경험으로 쌓아올린 담당자의 노하우가 부러웠다.

마지막 날 방문한 가정법원에서 특기할 만 것은 “어린이 먼저(Children First)”제도였다. 특히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모가 반반씩 권리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므로 반반씩의 권리는 재고될 수도 있으며, 주로 어머니가 양육을 맡게 된다고 한다. 특히 이혼하러 오는 부부들에게 판사는 부모의 역할을, 아동심리학자는 이혼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한다. 그 시간에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영화를 보거나 법정에서 가운을 입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진을 찍는 등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없애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분명히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부모와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수요모임에 참석하게 하는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한 판사는 하와이 가정법원에서 10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제도가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차원에서 숙고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3만여 한국 교민들의 자랑이기도 한 한국인 3세 로널드 문(Ronald T.Y. Moon) 하와이 최고재판소 주임판



사(대법원장)를 접견했을 때, 그는 가정법원 판사들은 여느 분야보다 삶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오랜 경험이 있는 법조인 등 지식보다 지혜를 중시해서 판사를 임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현재 하와이법원 판사 중 50%가 여성들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동등한 여성의 지위를 실감나게 했다. 그럼에도 성폭력 재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냐는 질문에 “피해자 비난”의 통념을 쫓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도 성폭력 재판의 걸림돌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 성폭력을 성관계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알 수 있었다.

이번 연수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아동보호체계 행정관 및 현장실무가인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은 실제 피해아동 지원활동의 노하우와 고충 등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양국의 법제도와 지원체계,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어린이를 지원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은 비슷하였다. 무엇보다 지원자가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효과적인 생존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재충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요가, 명상, 걷기 등 다양한 자신만의 비법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서로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아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공감대로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정겨운 자리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연수가 자비부담이어서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재충전과 네트워크를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인권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를 배우고자 출발한 이번 연수는 참가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과제를 던져주었다. 무엇보다 각 정책들이 나오기까지 탄탄한 준비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재정적 기반도 튼튼해 지원체계의 기초부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한편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인권보호는 잘 되어있지만, 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는 가는 의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진술녹화제도의 경우도 어린이와 장애인에만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성인여성들은 불리한 조건을 감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피해 생존자라는 큰 틀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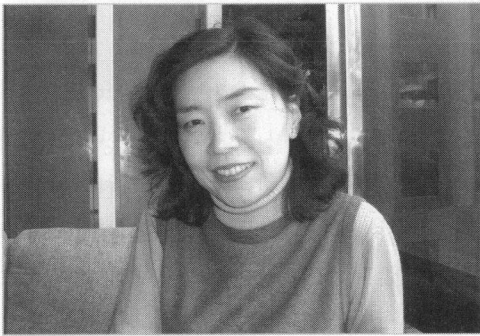
이번에 만난 어린이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가슴과 열정을 보면서, 특히 “땅을 돌보며 가슴의 소리를 듣고, 나 자신과 남을 존중하자”는 치유농장의 철학을 접하면서, 감성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을 함께하는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희망을 마음에 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상담의 깊이와 매력을 알아간다는

전성혜 선생님

김지선 _ 여성주의 상담팀



미리 인터뷰한다고 들었으면 더 화사하게 하고 왔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얼굴에는 약간의 수줍음과 미소가 번져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심리상담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음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구요. ^^

그동안 상담소와 같이 활동해주신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기차게 멋지게 만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전성혜 선생님 파이팅!!

☆ 상담소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하신지 1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었는지?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준비하면서 겸사겸사 성폭력상담원 교육도 같이 하게 된 것 같다. 당시 이번까지만 성폭력상담원 교육이 64시간이고, 다음부터는 100시간이라는 루머가 있어서 더 빨리 준비했었던 것 같다.(웃음) 워낙 학교 때 전공이 상담심리여서인지 상담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상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많은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 같다.

☆ 상담소외에도 다른 자원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 사는 곳이 일산이라 일산 YWCA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일주일에 만나질 자원활동 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스테디 모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다. 집에서는 남편이 자원 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편이 아니고, 애들도 고1, 고3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라고 은근히 압박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말다툼을 하기도 하는데, 내 성격상 집에서만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걸 이제는 알았는지 크게 힘든 적은 없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 대단하신 열정인 것 같다. 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그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최근에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거부감이 많았었다. 상담소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가 잘못 발언한 문제 때문에 생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는 못했었다. 그런데 상담소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주의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동화된 느낌이다. 전에는 여성주의 하면 투쟁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TV를 보면서도 여성의 관점에서 내가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고, 달리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 상담원 선생님간의 소통과 깊이 있는 만남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 그렇게 생각한다. 작년 말부터 매달 있었던 책임상담원모임이 중단되었는데 아쉽다. 그 모임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나눴는데...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상담원간에는 서로 시간 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서로 스테디를 하면서 심리 상담 쪽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싶은 욕심도 있다.

☆ 상담하면서 쌓이는 감정이나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는지?

- 음... 나는 주로 이야기하면서 푸는 스타일이다. 상담팀 사람들이랑 상담에 대해 논의하면서 풀기도 하고, 상담원 중에 조은희 선생님은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가끔 호수공원을 같이 돌면서 서로 상담 시 고민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푼다. 종종 남편, 집안 이야기도 하면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미소)

☆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다면?

- 외국에서 상담을 하신 분인데 가해자도 외국에 있었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던 상담이라 계속 기억에 남아있다.

☆ 상담소 다른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상근활동가에겐 꼭 할 말이 있다. 건강을 챙겨가며 일을 하면 좋겠다. 다들 피곤해 보이는데 건강은 젊을 때 챙겨야 하지 않을까?

- 상담원 선생님들께는 모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든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같이 하는 요일의 선생님 말고는 친밀감을 느낄 시간이 없어 아쉽다.

☆ 건강... 올해는 꼭 다들 챙겼으면 좋겠다.(웃음) 혹시 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

- 상담실 방음문제다. 전화를 두 선으로 다 받을 때는 서로 아무리 조용하게 이야기한다해도 옆의 상담내용이 들릴 때가 많다. 다른 상담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내담자들에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또 초반에는 다들 바빠 보여서 상담소에 오면 약간 반기지 않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

☆ 앞으로의 계획

-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과정을 즐기고 싶다. 상담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하고 싶고, 그 과정 속에서 나도 성숙해지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점심시간을 틈타 잠깐 만났던 지라 가볍게 식사를 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느덧 상담 받을 시간이 다되었지 뭔가? “글 이쁘게 써주세요~”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앞으로 상담소가, 상담을 고민하는 우리들이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선생님의 상담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보며 다른 상담원선생님들 마음도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그 마음들을 모아 내는 직업만이 남은 건 아닐까? ^^



비디오진술녹화규정과 증거보전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다



Q

피해를 입은 친구가 대학생인데, 성인이기 때문에 비디오 녹화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증언할 때 증거보전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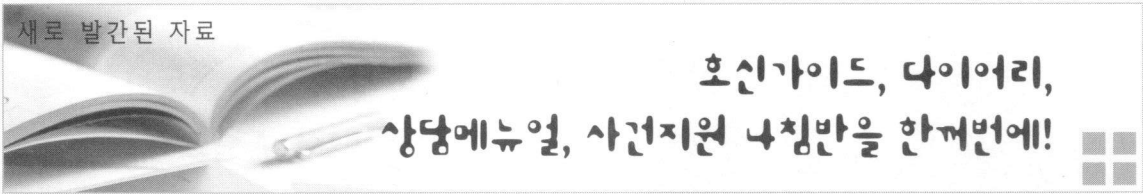
A

성폭력특별법상의 비디오진술녹화 규정은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겪는 2차피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에서는 나이,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녹화를 통해 진술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진술녹화본이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점차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보전청구권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이거나 어린이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성인피해자일 경우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요청을 받은 검사가 그 이유가 인정될 경우 판사에게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고, 판사, 가해자측, 수사기관 입회하에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진술의 횟수를 줄이고, 그것 자체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절차가 까다롭고, 가해자측이 입회할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어 그 활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진술녹화 의무규정을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현재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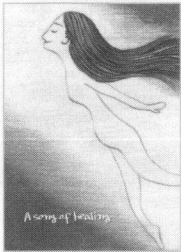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북 (2004.12)



밤길을 늦게 다니지 말라거나,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은 결국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생기는 의문. “여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더 쉽다면, 왜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더 강해지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아왔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네 명의 10대 소녀들은 작고 어린 여자가 아니라 자기 몸을 사랑하고 반격을 준비하는 새로운 여성-소녀들이다.

- 대 상 : 10대 청소년 누구나, 10대 여성 대상으로 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른 누구나
- 가 격 : 5,000원 (81매, 표지 칼라, 내지 16매 칼라, 내지 전체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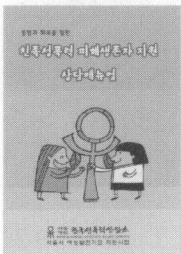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다이어리 -Song of Healing (2004.12)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획단이 함께 만들어낸 다이어리다. 우리가 언젠가 만났던 그 순간, 손가락 명상 지도, 버리고 싶은 말, 말하기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책과 정보들, 다른 생존자의 말들 등이 담겨 있다. 상처받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만나 치유하는 과정이 이어져있는 일러스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또한 가해자의 뺨을 때리는 유머러스하면서도 통쾌한 일러스트는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다. 매년 발간하는 이 생존자 다이어리에 자신의 치유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듯.

- 대 상 : 성폭력 피해 생존자
- 가 격 : 5,000원 (110매)

통합과 회복을 위한 친족성폭력 피해 생존자 지원 상담매뉴얼 (2004. 10)



친족성폭력은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자녀에게 행해지기 때문에 은폐되기 쉬운 문제이다. 본 책자는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여성주의 관점과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친족성폭력의 특성, 상담자의 기본 과제, 단계별 지원방법, 통합적 지원체계 등 친족성폭력 상담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총망라되어있다.

- 대 상 : 친척, 의료진, 경찰관계자, 사회복지사, 친구, 교사, 성폭력 상담원 및 단체 활동가
- 가 격 : 6,000원(102매)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성폭력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 (2004. 12)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면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왔던 상담자와 지원자라면 이 책은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책에 “정답”과 “길”이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책은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생존자와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책이며, 사건지원자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생존자와 만나야 할 지를 성찰하도록 돕는다. 고민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한번쯤 해보았을 바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잔뜩 만나게 된다. 상황별 사건지원 등을 실제로 사건지원을 할 때 유용한 자료이기도.

- 대 상 : 성폭력 상담원, 여성단체 관련 활동가
- 가 격 : 10,000원 (160매)

* 구입문의 : 02-338-2890 (자료판매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흥분과 감동의 여악여락 콘서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생존자 보호시설 열림터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리는 <여악여락> 뮤직페스티벌이 2004년 11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여악여락>은 열림터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기금마련 문화행사로써, 음악성과 대중성 그리고 사회의식을 겸비한 여성 가수들이 한 무대에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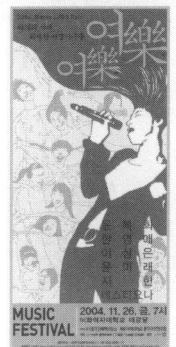
혹시라도 못오신 분들을 위해 공연의 분위기를 전해드리자면....<여악여락>의 무대는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이 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가수라는 수식에 어울리게 지현은 시종일관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신나게 무대를 누볐고, 지현의 무대 이후 다소 음울하면서도 신비한 분위기의 네스티요나가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신인밴드이지만 흥대를 비롯해 쌈지싸운드페스티벌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등 큰 무대 경험이 풍부한 네스티요나의 연주와 브육을 닮은 보컬 요나의 매력에 빠져들던 관객들은 이 두 개의 무대가 지나간 뒤, <여악여락> 콘서트의 최대의 화제였던 윤복희의 무대를 기다렸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리던 모습부터 최근 뮤지컬 무대에서 “예술, 절실하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나간 뒤 윤복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윤복희가 “여러분”을 열창하자 위대한 여성가수의 복원에 경탄한 관객들은 윤복희와 하나 되어 합창으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2년만에 돌아온 힙합의 여전사 윤미래는 ASOTO UNION의 연주를 비롯해 풍부한 백밴드와 함께 파워풀한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음악감독이자 음유시인 이상은은 아시아를 누비는 크로스오버 여성뮤지션으로서의 아우라와 예전의 재기발랄했던 모습을 적절히 배합하며 20-30대 관객들을 열광시켰고, 마지막 무대에 나선 한영애는 영매 같고 마녀 같은 그녀만의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관객들의 기분을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모든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상은의 “인젠가는”를 합창하며 다음에도 열릴 여악여락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악여락 행사는 단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기금마련의 의미를 넘어 여성문화를 발굴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문화행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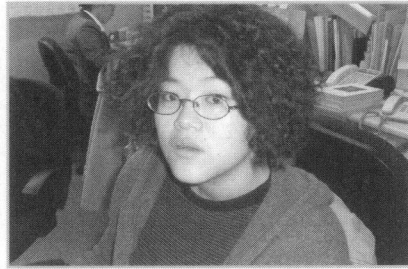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사무국에서 일하게 된 맨발 선생님의 자기소개!



안녕! 맨발이라고 불리는 떠돌이별이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상담소의 공간 한구석을 딱 하니 차지하게 됐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취미는 먼 산 바라보다 하품하기, 방바닥에 X레이 찍기, 코 풀기와 후벼파기(코**는 절대 안 먹어요), 틈만 나면 즐기기, 기타 등등이고, 상담소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앉아서 지내지만, 집에 가면 주로 누워서 모든 걸 해결하는 오리 지날 슈퍼 초특급 귀차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나? 갑자기 찢리네요. 흠...흠... 상담소에서 생활한지 4개월이 된 지금의 소감은 따뜻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이 사람들과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게..... 좋아, 좋아~~~~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간사로 일하게 된 오매 선생님의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오매입니다! 총회 때 오신 회원들께 인사드렸는데 다시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간사로 일하고 있고요, 2층 사무실로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제일 먼저 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재작년 가을, 벼락처럼 머리에 내려치는 바가 있어 물어 물어 찾아와 자원활동을 시작했드랬지요. 그리고 작년 봄부터 부설 연구소의 사업들("우리들의 약속" 시사회, 섹슈얼리티 강의 2 발간 작업, 호신가이드 제작 등)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과 소망이 생겨서 상근활동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등산모임과 치유소모임, 타로모임 등에서 회원님들과 만나고 교류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성폭력, 여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더 더 더 많은 의기투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부설 연구소와 올해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risv@paran.com

본 상담소 기획조직팀 간사로 일하게 된 모모 선생님의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새내기 활동가 모모입니다. 새해, 2005년 상담소에 새로운 희망들을 가지게 됐어요. 춤으로 여성을 만나고, 춤으로 생존자와 함께하는...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면서 자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로 숨쉬고 싶습니다.

모두들 정말 반갑습니다. 세 분이 오시고 난 다음 상담소에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기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상담소 회원들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데?

등산소모임,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한 세미나 모임, 여성영화감상 모임 등 올해는 어느 해보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소모임이 활성화된 해였습니다. 각 모임마다 함께 하는 회원, 그들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2004년을 돌아보고 2005년의 계획안에서 회원들이 무엇을 만들어 갈지 들여다볼까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한 세미나 모임 1기

1기 소모임은 올해 3월 첫모임을 시작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회원은 10여 명으로 3주에 한번씩 모여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경험과 책 속의 여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돕는 취지로 상담, 피해생존자를 돕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자 모였으나, 현재는 나 자신 또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로 피해자로 살고 있음을 서로 나누고, 그에 대한 대안과 실천들을 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세미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과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자합니다. 현재는 '영성과 광기(필리스체슬러)'를 커리로 일상에서의 나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있으며 5월부터는 구체적인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알아가는 것을 넘어 경험해지는 모임으로의 멋진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 문의 : 모모(jimmorrison@hanmai.net)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한 세미나 모임 2기

무언가 공부하는 모임. 무엇을? 그건 같이 고민해보자 - 로 시작한 2기 치유소모임.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 여자들의 꿈 - 여성과 광기 - 소설 - 등의 책을 훑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바쁜 생활에 다들 꼼꼼하게 만나지는 못하기도 했습니다. 8월에 시작한 모임은 어느덧 새해를 맞고... 두 차례에 걸친

모임을 통해 새로운 모색을 하였으니 - 구식은 분명하되 느슨할 수 있는 모임, 소수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고 동등하게 준비하는 모임을 추구하기로 땅땅땅.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여성주의 상담이론 공부모임(교재 :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 한올아카데미) 상담팀 상근활동가와, 책임상담원 선생님 등 새로운 신청자를 맞이하여 공부모임은 12명의 거대한 몸체로 벌써 세 번째 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여간 wldbstdrkr@hanmail.net



문화체험모임

2005년 상담소 영화소모임이 문화체험소모임으로 새롭게 태어났답니다! 영화소모임은 2004년 한 해 동안 여성의 발랄·감직·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여성의 아픔을 다룬 영화 등을 함께 감상하면서 설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만든 멋진 작품을 감상하고 즐기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비단 영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넘쳐나는 많은 음악과 연극, 뮤지컬, 영화, 춤, 이 모든 것을 함께 즐기고 느끼기 위해 문화체험소모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2005년 첫 공연으로는 연극 <산장의 여인>을 보았는데요, 미스터리 럭셔리 코미디를 표방한 이 연극으로 우리는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감동과 기쁨이 배가 되는 문화체험소모임! 우리의 펑펑한 삶을 충족하게 만들어주는 문화체험을 함께 하고 싶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빨리 오세요~^^(아림)



등산 모임

안녕하세요,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등산모임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회원님들..... 이 분명히 계절 거라고 굳게 믿고 오늘도 스펀성 광고 메일을 보내고 있는 등산모임지기 오매입니다아 (안녕하세요^^) 점점 등산모임은 어쩐지 컬트적, 마니아적인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근근이 이어가는 소수모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자 티내지 않고자 아등바등 이를 앓아물었으나 언젠가부터 신청자가 다섯 명 이상 되면 불안, 초조해지는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학습된 무기(대)력이라고 하던가요. 급기야 컬트, 마니아를 참칭하기에 이르렀지만 평균 2인의 추앙, 신봉세력은 주변인들 -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는 자원활동가들, 그래도 한번씩은 자리를 빛내주셨던 책임상담원 선생님들(광영!), 우리의 앙숙 상근활동가들(!!) - 에 대하여 기대·청원과 원망·불신·자조의 양가감정을 투사하며 자연과 독대하는 초월자의 여유작작한 마음을 품어보다가, 속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화상실 게시판에 도배하는 행위를 새해에도 이어갈 모양입니다요. 하.하.하. 그러나! 염려마세요, 등산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안달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 3월 산행 : 3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 6호선 불광역 구기터널 방면 출구

• 코스 / 단골 코스 북한산!

• 문의 : 오매 daffodils@naver.com

2005년 상담소 회원은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실천해보고, 나의 시간을 조금 더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상담소로 문을 두드려주세요. (현재 구성된 소모임이 아닌 새롭게 만들고 싶은 소모임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소모임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강영화 고경애 김민정 김상원 김순진 김유진 김은혜 김정수 김현수 노재봉 류영호 방윤식 배성신 백성길 백지선 서희석 신문창 심혜진 유정순 이영희 이인수 이재선 이창원 전병희 전원선 조상희 조서연 최진원 탁옥희

2004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남식 강득록 강수연 강영순 강인화 강현정 강형구 계경문 고계영 고금이 고미경 고영신 고정남 고진규 곽윤이 구나은 구민지 권김현영 권순남 권주희 권혁건 권혜수 금철영 길종성 김강자 김경림 김경선 김경진 김경현 김경희 김광진 김군자 김금란 김남수진 김덕현 김동령 김동희 김두나 김들순 김미경 김미경1 김미라 김미숙 김미숙1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성 김병숙 김보연 김삼화 김삼미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1 김선애2 김선주 김성득 김성일 김성천 김소명 김소연 김 수 김소옥 김순자 김양지 김연정 김엘림 김연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애 김옥선 김용란 김용자 김원식 김윤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진 김익창 김일륜 김재원 김주필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2 김지윤 김지혜 김진만 김진희 김진희1 김태경 김하연 김학실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란 김현식 김현정 김형수 김혜경1 김혜경2 김혜련 김혜숙 김혜승 김혜정1 김혜정2 김혜진 김화영 김효선 김희경 나길희 남김유진 남순열 남우희 남정현 남현미 노미선 노미순 노주희 도순아 류수진 류영호 류인경 맹주현 메 사 문효진 민현경 박경화 박남원 박내현 박미경 박미라 박미라 박미숙 박미향 박보영 박상규 박선희 박성근 박소라 박소연 박소영 박순복 박신옥 박윤미 박윤숙 박장미희 박정란 박정옥 박정희 박종선 박준면 박지영 박지현 박진성 박진숙 박진숙 박창은 박현주 박혜영 박혜진 방상희 배은경 배희진 백선희 변계희 상목스님 서명선 서미현 서민자 서성준 서순진 서용완 서정표 서태자 설연자 성지은 손명숙 손명화 손수경 손이전 손종성 송미옥 송수영 송영훈 신동헌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희 신숙희 신아령 신유미 신윤진 신은주 신정혜 신희경 심수희 심용선 심혜련 심혜진 SUNS(싱글여성모임) 안경희 안민 안연하 안재훈 안철민 안형윤 양애경 양영희 양재부 양효준 어 라 엄경출 엄인숙 여영자 오세희 오숙희 오승이 오유지 오은순 오정현 오태형 오현숙 오희선 오희옥 옥민영 우안녕 원민혜 원순경 원형섭

유경희 유병석 유성혜 유은주 유인숙 유현광 윤명화 윤수현 윤숙경 윤애리 윤양현 윤연숙 윤영규 윤영란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윤형흔 이경란 이경로 이경룡 이경미 이경아1 이경아2 이경애 이경은 이경환 이고운 이규화 이근혜 이나미 이내화 이명숙 이명자 이미경 이미정 이민영 이민희 이백수 이상근 이상미 이상은 이상화 이새롬 이석민 이선숙 이성수 이성재 이소림 이소희 이수명 이수자 이순례 이순순 이애란 이어진 이연실 이영미 이영분 이영표 이영희 이옥희 이우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성 이윤옥 이윤희 이은미 이은상 이은애 이은정 이인희 이재선 이재인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자 이종란 이종환 이주희 이지선 이지은 이창윤 이춘미 이푸른에 이해득 이해진 이해경 이해숙 이해숙59 이호숙 이호진 이효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순영 임자영 임종은 임주희 임홍섭 장 진 장다혜 장순례 장순복 장윤경 장윤정 장철우 장혜순 전병희 전성혜 전유경 전희진(김환수) 정경애 정교화 정대현 정문영 정민기 정순희 정여진 정연배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석 정은선 정이숙 정인숙 정정희 정진욱 정현주 정혜련 조 은 조계삼 조량말 조민우 조성천 조소연 조수현 조순희 조영석 조운주 조은숙 조은영 조은희 조인옥 조재학 조종신 조혜옥 주명희 지인순 차성안 차혜령 채우리 채현숙 천정환 최경식 최광식 최금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현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선아 최성호 최아림 최양렬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윤수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정은 최지너 최진아 최현무 패킷미디어 표창원 하은주 하진옥 한경희 한기모 한덕훈 한병규 한보경 한재철 허은주 홍길표 홍만희 홍보연 홍성복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황성기 황순경 황영희

2004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나눔터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배성신 백희정 조서연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 ^^

강정자 강학중 고정남 권윤진 김경현 김경희 니콜라 변혜정 손용석 안형정 이명선 이미경 이병규 이상구 장필화 정경자 정재정



우리, 다가올 새해에는 후원나무 하나씩 내 안에 키워보는 것 어떨까요?
 복잡복잡했던 올해도 이제 지나갑니다.
 다사다난했던 그 시간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
 어떤 사람들은 시간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낸 시간들은 세상 저 끝으로 가서 다른 시간들과 함께 쌓여있는데,
 내가 보낸 시간들은 어떤 빛을 발하며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간다면
 그 안에 성폭력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내 의지를 담은 후원나무가 있다면
 아마 한참 뒤에 쌓인 시간들을 돌아보며 빙긋 웃을 수 있겠죠?
 자, 후원나무 이제부터 키워보자구요 ~ ~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후원(회원)이 되시면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나눔터>를 보내드립니다.
- 상담소 발간 자료를 20% 할인해 드립니다.
- 상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좌, 교육신청시 수강료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 각종 상담소 행사에 초대됩니다.
- 회비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회원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

- cms 자동이체 : 금융결제원의 협조로 회원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회비가 상담소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담소에 알려주시면 매달 26일 약정하신 금액이 인출됩니다.
- 자동이체 :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상담소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국민은행 009-01-1176-632 외환은행 224-22-02532-8
 기업은행 216-013179-01-018 조흥은행 308-01-133092
 농협 037-01-194301 우리은행 441-04-107528

- 지로 납부 : 3개월에 한번씩 3개월 분의 지로가 연 4회 우편 발송됩니다.

위의 납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어 기획조직팀 김지선 간사(02-338-2890)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 월 5,000원 이상씩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학생 및 일반분들은 연 15,000원을 내시면 나눔터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04년 회계보고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수입자부 | | 지출자부 | |
|-----------|-------------|----------------|-------------|
| 전기이월금 | 310,308,884 | 급여 | 81,539,030 |
| 회원기부금 | 53,835,320 | 사회보험료(급여) | 5,681,370 |
| 자료물품판매수입 | 12,039,022 | 퇴직적립금(급여) | 5,403,000 |
| 특강 수입 | 5,030,670 | 복리후생비 | 4,691,950 |
| 강좌등록수입 | 8,900,225 | 관리비 | 4,913,218 |
| 행사수익금 | 151,613,790 | 사무비 | 18,604,529 |
| 일반기부금 | 65,361,820 | 사무국사업비 | 7,206,680 |
| 국고보조금 | 99,030,000 | 상담사업비 | 14,996,325 |
| 프로젝트수입 | 134,195,500 | 인권사업비 | 2,331,160 |
| 이자수익 | 1,039,230 | 기획조직사업비 | 102,275,679 |
| 집이익 | 48,182 | 정책개발사업비 | 1,658,273 |
| 기타수입 | 6,200,910 | 홍보출판비 | 15,350,200 |
| 예수금 | 13,886,300 | G상담소급료 | 48,084,800 |
| 가지급금 회수 | 5,828,580 | G상담소건강보험 | 1,150,570 |
| 차입금 | 12,200,000 | G상담소국민연금 | 1,856,250 |
| 대여금회수 | 353,560 | G상담소산재보험 | 208,160 |
| 성폭력문제연구소 | 30,057,793 | G상담소고용보험 | 336,450 |
| 사옥 증 개축기금 | 9,800,000 | G상담소퇴직적립금 | 4,006,980 |
| | | G상담소운영비 | 3,174,790 |
| | | G상담소성폭력 피해치료비외 | 40,212,000 |
| | | 열린터전출금 | 14,000,000 |
| | | 프로젝트집행비 | 350,557,800 |
| | | 프로젝트자부담 | 6,871,696 |
| | | 선납세금 | 2,300 |
| | | 비품비 | 2,880,000 |
| | | 예수금 | 12,938,970 |
| | | 가지급금 | 1,928,580 |
| | | 가수금 | 2,400,000 |
| | | 차입금반환 | 9,800,000 |
| | | 기타 | 3,291,730 |
| | | 성폭력문제연구소 | 22,418,177 |
| | |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금 | 1,000,500 |
| | | 사옥 증 개축기금 | 14,264,380 |
| | | 차기이월금 | 113,694,239 |
| 수입자부 계 | 919,729,786 | 지출자부 계 | 919,729,786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MAX HORIZON SEARCH

양영희 선생님, 여러 성품의 상당한 거래용,
 정말 정말 흥분신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너무 좋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본들 모두 상당한 감사입니다.)
 나날이 더지러운 세상에서요, 선생님들 같은 '좋은분들'
 덕분에, 그만이 위안해져 버립니다. 그러려면
 오직의 목표들은 100%. 상당한 여러분들 보다는
 아예없, 또 의지한 힘과 함께 생각은 해줍니다.
 우선, 그러해서 정말더 잘 만들어서 꼭 여러분들
 바쳐 쓰시려고. 또 이번이 필양사인 마음에 단골로
 있으시면 꼭 연락도 해주면 된, 세상에, 세상에
 티끌하고 있는 세상이요 정말 이번 기회에
 한층더 여러 Mad Boys들을 꼭 흔하게, 정말
 바쁘게 치러야 해주지라고

최흥도
 010-315-5111
 MAX HORIZON SEARCH

맥스 호리즌 서치(Max horizon Search)의 유기옥 이사님께서
 본 상담소로 예쁜 달력과 사탕, 과자를 잔뜩 보내오셨습니다.

밀양에서 일어난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을 보고
 무엇인가 도울 일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격려편지와 선물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뜻밖의 선물에 모두 봄날이 온 것 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